Weekly 공감
2010.09.15 No.77
gonggam.korea.kr
G20 SEOUL SUMMIT 2010
중점기획 서울 G20 정상회의 p14~20
이명박 대통령 러시아 순방 의미와 성과 p8~9
2010 광주비엔날레 p10~13
여주, 구미, 창녕, 부여, 나주 자치단체장들이 말하는
'4대강, 이렇게 달라졌다' p23~49

수령
주령
온누리상품권으로
부자되세요!
백화점상품권 안부러운 알뜰한 상품권!
우리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상품권과 함께
상인 여러분의 풍성한 수익이 열립니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 상품권 관련 문의 1544-4090 · www.onnurigift.co.kr

#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일'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올해는 일년 내내 기상과 관련한 일로 온 국민이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겨울에는 몇십 년 만의 혹한으로 전력수요가 예년과 달리 최고에 오른 적이 있다. 한여름에는 불볕더위로 연일 전력수요가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8월 한 달 동안에만 태풍이 연속 세 번이나 한국을 지나갔다. 최근 태풍 곤파스가 휩쓸고 간 후 약 2천억원 정도의 경제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곤파스는 무려 25만여 그루의 나무를 쓰러뜨렸다. 태풍이 나무만 쓰러뜨리고 간 게 아니라 농민과 가난한 도시민의 마음까지도 쓰러뜨리고 간 듯하다.

자연 재난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 50년 동안 기상재난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약 80만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겼으며, 경제적 가치로는 1조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당시 세계은행 부총재인 니컬러스 스턴은 그가 발표한 '스턴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방치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퍼센트(약 9조6천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후에 그 비용이 매년 전 세계 GDP의 5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자연 재앙의 이유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하원에서 '미국 청정에너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2050년까지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온난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바이오연료 할당법'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포괄적인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10년간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을 위해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가 영국이다. 영국은 에너지·기후변화부의 신설과 함께 '기후변화법'을 제정했으며 기후변화세도 걷고 있다. 또 2016년까지 모든 신규 건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며, 건축물을 대상으로 최소 물이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기후변화는 물과 농작물, 에너지, 보건, 환경 그리고 사회기반, 심지어 빈부격차와 난민 문제까지 사회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변화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홍수와 물 부족이다. 최근 10년(1998~2007) 동안 우리나라의 자연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약 22조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기상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험을 기반으로 해 기후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재무구조도 마련해야 한다.

자연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다. 그럼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그것이 이성적인 인간이 해야 할 행동이다. 지금이 바로 나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변화를 도모할 때다. G

Weekly
2010.09.15
No.77(통권 178호)

# Contents

**표 지 이 야 기**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4대강 인근 기초자치단체장들. 뒤로 보이는 것이 9월 10일 준공식을 가진 낙동강 부산 화명지구다.

24

50

14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9.1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 4대강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강 흐름을 막았던 퇴적물을 걷어내고
콘크리트 제방을 우리 꽃과 풀이 자라는
생태호안이 대신합니다.
빗물을 저장하는 '큰 물그릇' 보(洑)가 물 부족의 시름을
덜면서 수문을 갖춘 가동보가 홍수 걱정을 날려보냅니다.
되살아난 강물이 저 멀리 바다까지 건강하게 만들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삶의 터전으로 거듭나는 4대강,
4대강살리기는 이렇게 생명의 보금자리를,
자연과 문화가 만나는 행복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4대강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76호(9월 8일자) 기획특집 '공정한 사회, 문화복지 대한민국'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 "미래는 창의력 있는 아이들에게 있다"

"울산 반천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의력 있는 아이들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키우려면 문화예술교육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꽃 씨앗학교나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_하현희

"그간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로 어느 정도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문화생활까지 누리고 즐기는 계층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도농간 소득 격차를 떠나 국민 대다수가 함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여건과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썼으면 합니다."_배을순

### "노년층 외로움, 문화로 잊고 살아요"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시대의 문화 중심에서 점점 소외되는 모습에서 삶의 무상함을 처절하게 느끼죠. 앞으로 그들 생애 막바지까지 채 피우지 못한 재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어르신 문화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확산됐으면 합니다."_김정남

"끼 많고 재능 있는 장애인들을 모아 '쿵따리유랑단'을 만들고, 교정시설을 돌며 공연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강원래 씨가 존경스럽습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현대인들에게도 그 공연을 보여주고 싶네요. 앞으로 뉴욕 브로드웨이나 런던, 파리 등지에서 열릴 쿵따리유랑단의 공연을 희망하며 세계 속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길 바랍니다."_김지나

76호 '이슈 / 추석 자금난 해소 14조4천억원 푼다' 기사를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매년 가장 기다리는 즐거운 민족 명절인 추석 때만 되면 걱정이 많습니다. 제수용품 등 물가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추석을 앞두고 18개 정부 부처가 마련한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 방안'을 통해 추석 물가뿐 아니라 장기적인 물가 안정까지 이룰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_김재연

74호(8월 25일자) '한일강제병합 100년 / 문화재 반환 철저한 실무 협상을'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낸 의견입니다.

"한일강제병합 1백 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유출된 문화재 〈조선왕실의궤〉가 되돌아온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앞으로 일본의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일본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반환 대상 문화재 목록으로 작성해 이른 시일 안에 반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_박태진

"삶의 터전에 예술꽃 씨앗을 뿌리자"

추석 자금난 해소 14조4천억원 푼다

알립니다

## 물사랑 '글·사진·디지털 콘텐츠' 찾아요

물과 관련한 아름답고 소중한 작품들을 '2010 K-water 물사랑공모전'을 통해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소중한 물, 아름다운 강. 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부문** | 문예, 사진, 디지털 콘텐츠
**참가 대상** |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지원 가능(각 부문당 3점 이내 응모)
**접수 기간** | 9월 30일까지
**응모 방법** | 홈페이지에서 물사랑공모전 팝업창 클릭 후 신청(문예·사진 부문은 접수증과 작품을 동봉해 우편 및 직접 방문 제출, 디지털 콘텐츠 부문은 접수증 파일 및 작품 파일을 홈페이지 통해 제출)
**접수처** |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49-7 중앙대 동창회관 2층 2010 K-water 물사랑공모전 운영사무국 담당자 앞
**수상자 발표** | 10월 예정

**2010 물사랑공모전 운영사무국 ☎ 02-6911-6550 kwater.or.kr**

## 일기 쓰며 기록문화 중요성 알려요

기록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기록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기록 생활화를 위한 일기를 공모한다.

**공모 부문** | 생활일기와 체험일기
**참가 대상** | 전국 초중고교생(초등부와 중고등부), 일반인(대학생 포함한 일반부) 등 국민 누구나
**접수 기간** | 10월 8일까지
**응모 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일기 사본과 함께 우편 제출(10월 8일자 소인까지 유효)
**접수처** |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504호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제2회 기록 생활화를 위한 일기 공모 담당자 앞
**수상자 발표** | 10월 29일 예정. 홈페이지에 게재 및 수상자 개별 통보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 042-481-6653 archives.go.kr**

## 공감 ♥ 퍼즐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9월 22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가 로

1. 알을 낳는 능력이 있는 암벌. 몸이 크며 우두머리 벌이죠. 꿀벌에서는 한 떼에 한 마리만 있습니다.
3. 전남 중서부에 있는 도시. 전남평야의 농산물 집산지이며, 영산강이 지나가고 영산포가 있는 곳. 죽산보가 세워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4. 어떤 모임에 참가해줄 것을 청함. 사람을 불러 대접함. "결혼식 하객으로 OO를 받았다."
7. 간단하고 편리함. 물건의 내용, 형식이나 시설 등을 줄여 이용하기 쉽게 한 상태. OO휴게소. OO역.
9. 두 사람 이상이 손을 내밀어 세 가지 모양에 따라 순서나 승부를 정하는 방법이죠.

### 세 로

1. 경기도 한강 중류에 있는 군. 신륵사, 쌀, 물류단지, 영녕릉….
2. 성묘를 앞두고 산소의 풀을 베서 말끔하게 하는 일.
5. 쇠를 달궈 두들겨서 갖가지 연장을 만드는 곳이죠.
6. 음력 8월 대보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죠.
8. 4대강살리기 사업 16개 '명품 보' 중 하나. 경기 여주군 한강에 세워지고 있는 가동보.

**〈Weekly 공감〉 75호(9월 1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3** 소상공인 **6** 창업 **7** 예절 **8** 발원지 **10** 효자
**세로** **1** 중소기업 **2** 열공 **5** 인의예지 **8** 발효 **9** 원자

**〈Weekly 공감〉 75호 '공감 퍼즐' 당첨자**

고순자·제주시 이도2동
서동현·서울 노원구 하계2동
아라리·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전선미·강원 태백시 동점동
정연주·서울 관악구 봉천동

# PKO 참여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

**김정훈** 국방부 해외파병 홍보대사

충성! 국방부 해외파병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김정훈 상병입니다. 2인조 보컬그룹 'UN'의 멤버에서 솔로로 전향해 일본, 중국 등지로 활동무대를 옮겨 활기찬 나날을 보내던 중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했을 때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방부 홍보지원 대원이자 해외파병 홍보대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6·25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우리나라가 60년 만에 경제 강국의 일원으로 성장한 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반세기 만에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만큼 이제는 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뿐 아니라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적 기여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베트남전 파병 이래 해외파병 규모를 조금씩 확대하기는 했지만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의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규모는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견한 이래 올해 7월 1일 현재 총 3만3천2백45명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PKO 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을 보호할 방호부대 파견을 결정한 데 이어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아이티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한 것은 인류애를 위한 따뜻한 결정이었습니다. 20만명이 사망하고 1백5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아이티의 복구와 재건에 우리 군도 동참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일러스트 · 문지혜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PKO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안전과 평화는 인류가 수호해야 할 가치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입니다. 이는 한 번의 해외파병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수출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안전과 평화 자체를 국익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방의 지원으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한계를 뛰어넘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의 튼튼한 경제력을 무기로 세계평화에 직접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한류 붐도 아시아를 넘어 다른 대륙으로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시선을 부탁드립니다.

글 · 김정훈(가수)

##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홍초롱** 서울 관악구 신림2동

1. '쌀 수요 초과분 정부에서 전량 매입' 기사를 보면서 여전히 쌀값 하락으로 노심초사하는 우리 농민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 전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지나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 쌀 20킬로그램을 주는 이벤트를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날로 가격이 하락하는 쌀을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되겠지만 이를 국민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를 상시 모집해 좀 더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2. 예술강사 최영익 씨를 소개한 기사를 보면서 소외된 지역에 작은 꿈을 틔우는 전도사라는 생각에 흐뭇했습니다. 주지하듯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받는 지역을 위한 문화적 배려가 더욱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3. 〈Weekly 공감〉 독자들의 참여 공간을 확대해 〈디카로 보는 세상〉 〈내가 쓰는 독후감〉 〈이건 고쳤으면〉 등의 코너를 신설해주세요.

**홍대욱** 경남 양산시 소주동

1. '쌀 수요 초과분 정부에서 전량 매입' 기사가 반가웠습니다. 쌀 공급이 넘쳐나 재고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엔 초과분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니 안심입니다. 도시 소비자들도 좀 더 우리 쌀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섭취해야겠습니다.

2. 요즘 '공정한 사회'가 화두인데 문화복지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소외계층, 소외지역이 없이 누구나 문화생활을 누리려면 우리 모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문화바우처 제도도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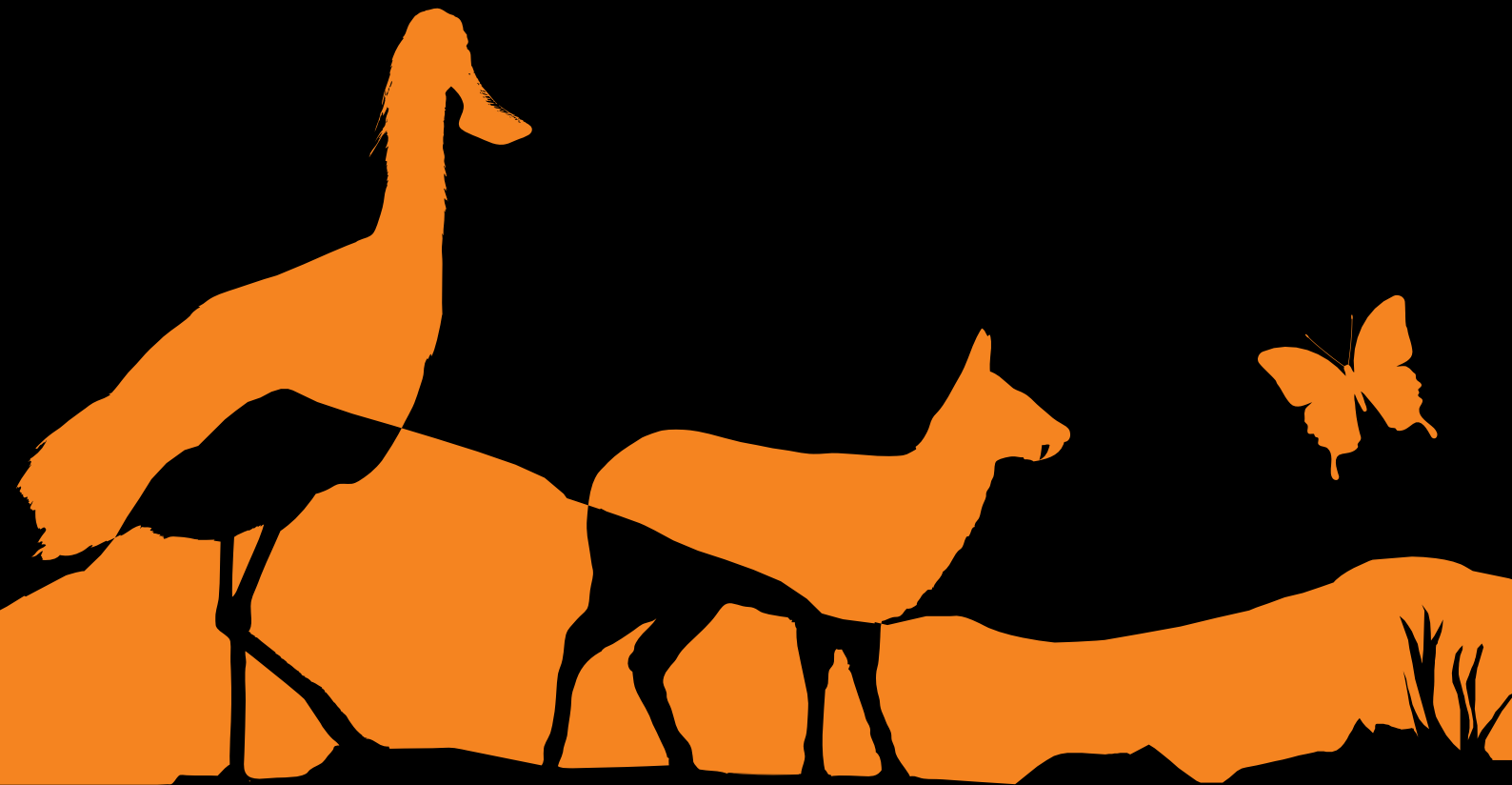
3. 차례상 차리는 법, 추석에 할 만한 놀이를 소개해주세요.

###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15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달라지는 4대강'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2010 한국생태관광 사진공모전

2010.8.25~10.3

한국의 생태경관, 생태자원, 생태관광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표현하는 사진작품을 공모합니다.

| | |
|---|---|
| 응모주제 | 생태관광과 관련된 생태자원, 생태경관을 주제로한 사진<br>한국형 생태관광 10대 사업지를 소재로한 생태관광사진 |
| 응모기간 | 2010년 8월 25일~10월 3일 40일간 |
| 시상내역 | 대상 1명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300만원<br>최우수상 2명 :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상 상금 100만원<br>우수상 5명 :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상 상금 50만원<br>장려상 5명 :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상 상금 30만원<br>입선 30명 : 상장과 상품 |
| 접 수 | 홈페이지 http://contest.ecotourism.or.kr |
| 문 의 | 한국생태관광협회 02.723.8677 |

주최 한국생태관광협회 ecotourism Korea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제2차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9월 10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 수교 20년… ‘전략적 협력동반’ 강화

## 이명박 대통령,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서 ‘공정한 사회’ 소개

**오는 9월 30일 수교한 지 만 20년을 맞는 한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에 나선다. 러시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에서 ‘공정한 사회’를 한국 사회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로 소개하며 21세기 민주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제2차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9월 10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 초청으로 9월 9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야로슬라블 시내 ‘아레나 2000’ 회의장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에너지·자원 및 극동 시베리아 개발, 러시아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협력 등 양국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가 그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하고, 2008년 9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극동 시베리아 개발 및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15년부터 매년 7백50만 톤씩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선박이나 북한을 거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에 들여오는 방안과 ▲우리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연결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 러시아 경제 현대화 위한 협력방안 협의

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평화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고, 양 정상

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한 양국 정상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 양국 관계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洞爺湖)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 그해 9월 러시아 방문, 지난해 7월 이탈리아 라퀼라 G8 확대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후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경험을 소개하고 러시아의 국정 과제인 경제 현대화에 대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 "공정한 사회가 선진화의 윤리적 · 실천적 인프라"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정치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키우기 위해 지난해 창설했다.

기조연설에서 특히 글로벌 정보통신 시대의 민주주의 발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건강한 시민사회, 양극화 문제 대비 등을 역설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경험을 소개하고, 러시아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 현대화에 대한 우리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단계 높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으로 밝힌 '공정한 사회'가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임을 설명했다.

이번 기조연설은 포럼의 주제인 '현대국가의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맞춰 국가 현대화 및 지식기반산업 발전 등을 성공적으로 일궈낸 한국 대통령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앞서 러시아 방문 첫날인 9월 9일 이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와 만나 우주, 원자력, 자동차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를 논의했으며, 푸틴 총리는 남북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푸틴 총리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더욱 확대 심화되고 있는 데 만족감을 표하고 에너지 · 자원, 극동 시베리아 개발, 교역 및 투자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어 러시아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 현대화에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향후 양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푸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러시아 유력 경제인들과의 만남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푸틴 총리와 만난 뒤 같은날 오후 6시부터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러시아 유력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러시아기업가연맹(RUIE)의 알렉산드르 쇼킨 회장, 알렉시 밀러 가즈프롬 사장, 알렉세이 모르다쇼프 세베르스탈 사장, 이고르 쥬진 메첼그룹 회장 등 러시아를 대표하는 유력 경제인 12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최근 가스 등 에너지자원 분야 이외에 자동차, 조선, 전력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경제 현대화 5대 분야(에너지 효율화, 원자력, 의료 기기 · 기술, 우주 · 통신, 전략정보기술)에서 양국 기업 간에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9월 9일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러시아 유력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러 수교 20년간 교역 추이**

| 연도 | 대러 수출 | 대러 수입 | 교역규모(수출+수입) |
|---|---|---|---|
| 2009 | 4,194 | 5,789 | 9,983 |
| 2008 | 9,748 | 8,340 | 18,088 |
| 2005 | 3,864 | 3,937 | 7,801 |
| 2000 | 788 | 2,058 | 2,846 |
| 1998 | 1,114 | 999 | 2,113 |
| 1995 | 1,416 | 1,893 | 3,309 |
| 1992 | 118 | 75 | 193 |
| 1991 이전 | 통계 없음 | | |

출처 · 한국무역협회의 종합무역정보포털

▶독일 작가 이데사 헨델스는 〈테디베어 프로젝트〉를 위해 1900년부터 1940년까지 제작된 테디베어를 찍은 3천여 장의 사진을 수집했다.
▼광주비엔날레 기간 동안 매 주말에는 '만인 주말 콘서트'가 열린다. 사진은 9월 4일 재즈 공연.
▼▼레오나르도 카츠가 1997년 제작한 〈당신이 날 사랑할 날〉은 체 게바라의 마지막을 담은 기록영화다. 영상 중 한 컷은 1967년 볼리비아에서 체 게베라 시신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

"우리는 매일 수백만 개의 이미지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이미지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의 숱한 이미지를 담은 이번 전시를 초상화 갤러리 또는 가족 앨범 순례라고 이해해달라."
9월 3일 개막한 제8회 광주비엔날레의 마시밀리아노 조니 총감독은 올해 전시 주제인 '만인보(萬人譜·10000 LIVES)'를 이렇게 풀었다.
만인보는 고은 시인이 펴낸 30권 분량의 장편 연작 시집 〈만인보〉를 그대로 본뜬 주제. 고은 시인이 만났던 실존 인물과 가상 인물 3천8백명을 서술한 〈만인보〉처럼 인간 군상의 이미지를 현대미술로 표현하려는 시도다. 표현 방식은 사진, 가면, 인형, 조형, 영상, 아바타 등으로 세계 31개국에서 1백34명의 작가가 9천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맨 처음 만나는 작품은 크로아티아 작가 사냐 이베코비치의 〈살아 있는 기념식〉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중가요를 부르던 장면을 재현한 전시물이다. 자오수통 등 중국 작가들이 제작한 〈렌트 컬렉션 코트야드〉는 소작농들의 애환을 담은 1백3개의 인체 실물 크기 조각품들이다. 독일 작가

# 9천여 가지 인간 群像 만인의 자리에

## 제8회 광주비엔날레 성황

영적 테라피 미술세계를 보여주는 엠마 쿤즈의 〈086 드로잉〉.

▲9월 2일 '2010 광주비엔날레' 프레스 오픈 행사에서 미술 관련 내외신 기자들이 이탈리아 출신인 마시밀리아노 조니 총감독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196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지주와 소작농 등 1백3인을 실물 크기로 제작한 〈렌트 컬렉션 코트야드〉는 중국 문화혁명의 토대가 된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진작가 필립로르카 디코르시아는 작품 〈1000〉에서 25년을 넘게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1천 장을 집대성했다.
▲▲2010 광주비엔날레 메인 전시관.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국제무대에서 손꼽히는 현대미술 비엔날레로 자리 잡았다.
◀신디 셔먼은 작가 본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여성의 정체성이나 성폭력, 절망 등을 다루는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이데사 헨델스가 수집한 사진과 인형 등으로 꾸민 〈테디베어 프로젝트〉는 테디베어를 소재로 3천여 명의 인간 군상을 보여준다.

사소한 일상과 자아를 섬세하게 기록한 연대기 작품들도 인상적이다. 중국 시골 노동자들이 스스로 삶을 녹화한 〈우리 마을〉, 중국인 예징리가 60여 년간 매년 자신의 사진을 찍은 〈60년의 초상화〉, 수천 장의 스냅 샷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은 스위스 작가 피실리와 바이스의 〈보이는 세상〉, 한국의 작가집단 안경점이 2백46일을 기록한 〈no date, no data〉 등이 주목되는 작품이다.

관람객 참여 기회도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는 관람객들이 즉석 사진을 찍어 벽에 붙이는 〈실시간 전시 n.4(당신의 덧없는 잠깐 동안의 방문을 사진으로 찍어 벽에 남기시오)〉가 진행 중이다. 광주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옥상에서는 상인들과 시민들이 시장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양동시장전〉이 열린다. 초등학교, 치과 등 광주 일대 25개소에서는 시민 공모로 뽑힌 작품을 전시하는 〈나도 비엔날레 작가 : 만인보+1〉이 마련돼 있다. 한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 무대에서는 전시 기간 동안 매 주말 민속 공연, 사물놀이 등을 펼치는 '만인 주말 콘서트'가 열린다. G

글 · 최은숙 기자 / 사진 ·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 2010 광주비엔날레 개요

| | |
|---|---|
| 주제 | 만인보(萬人譜 · 10000 LIVES) |
| 장소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양동시장 등 |
| 전시 기간 | 9월 3일(금)~11월 7일(일) |
| 개관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전시 기간 무휴) |
| 작가 및 전시작품 | 31개국 작가 1백34명의 작품 9천여 점 |
| 관람료 | 일반 1만4천원, 청소년 5천원, 어린이 3천원 |

광주비엔날레재단 ☎ 062-608-4228 www.gb.or.kr / 만인보 www.10000lives.org

▲〈서 있는 소녀〉라는 제목의 이 골동 인형은 사진작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모턴 바틀릿의 수집품이다.
▲▲추상화가이자 조각가인 루프레이트 가이거는 수십 년간 빨간색에 천착하며 풍부한 색감을 실험했다. 사진은 그의 설치작품 〈붉은 회오리 바람〉.
◀독일 작가 카타리나 프리치의 작품 〈성 카타리나와 두번째 사진(담쟁이 덩굴)〉은 성스러움과 세속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상황 이상無

# 한국, '룰 테이커'에서 '룰 메이커' 된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9월 12일로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는 단지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개최국으로서 국제무대의 '룰-메이커(Rule-maker)'가 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21일 열린 G20 셰르파 회의 개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는 11월 11, 12일 이틀간 열릴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로 가장 바쁜 곳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다.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2010년도 의장국과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확정되면서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청와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에 산재했던 조직을 일원화한 준비위원회에는 현재 1백80명의 직원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뛰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이를 위해 크게 ▲의제 개발과 국가 간 의견 조정 ▲성공적인 국제회의 개최 준비 ▲국내외 협력 및 홍보 등 3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4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일련의 회의를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제 개발과 국가 간 의견 조정을 해왔다.

### 정상회의 의제 개발 · 국가 간 의견 조정

그동안 거둔 가장 큰 성과는 한국의 경험을 세계에 전수해 줄 수 있는 이슈가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로 선정된 점이다.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살린 글로벌 금융안전망(FSN)과 경제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해줄 수 있는 개발 의제가 그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G20 정상회의 의제로 선정된 이후 한국 주도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견을 좁혀 지난 8월

30일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는 1차적 성과를 거뒀다. 이 대출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경제위기 발생 전 사전적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FCL을 보완하는 새로운 예방대출제도(PCL) 도입이다.

이러한 결실을 거둔 것은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처음 주재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6월 4, 5일·부산)의 영향이 컸다. 이 회의 성명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국내, 지역 간, 다자 간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했으며 IMF의 대출제도 개선 등 한국이 주도한 초안을 대부분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명시했다.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이 두 가지 의제를 포함한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G20 셰르파 회의(7월 21, 22일·서울)를 시작으로 IMF개혁 실무그룹 대면회의(9월 1, 2일·서울), 글로벌 금융안전망 전문가그룹 대면회의(9월 3일·서울)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9월 4, 5일·광주) 등을 거쳐 G20 회원국, 비회원국, 국제기구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가 간 의견 조정을 해왔다.

앞으로도 10월 14, 15일 인천에서 열리는 G20 셰르파 회의, 10월 22, 23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비즈니스 서밋(11월 10, 11일)에 이어 서울 G20 정상회의(11월 11, 12일)를 맞이하게 된다.

### G20 성공적 개최 위한 의전 준비 및 홍보

준비위원회와는 별도로 비즈니스 서밋을 위해 지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참여한 준비위원회가 출범해 일정 및 의제 확정, 참가 최고경영자(CEO) 선정, 사전회의 개최 등 준비 작업을 해오고 있다.

국제적 기업의 CEO급 인사 1백여 명이 참석하는 '민간 정상회의'인 비즈니스 서밋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서울 G20 정상회의는 정치적 행사를 넘어 민간 부문까지 참여하는 행사로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제회의 개최 준비도 빠질 수 없다.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G20 정상들과 수행원, 기자 등 총 5천명이 일시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회의 개최 장소, 시설, 인력 등을 적절히 준비해 성공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행사장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준비위원회는 이들의 출입국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의전과 숙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행사를 지원할 자원봉사자도 이미 선발해놓았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 의전 지원요원(총 57명)을 선발해 교육 중이며,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G20 정상회의지원단도 7천3백명의 행사 지원요원을 선발해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교육을 실시한다.

민간 의전 지원요원들은 G20 정상회의 참가 대표단을 전담하는 외교관인 의전연락관(DLO)을 도와 의전과 행사 지원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임무를 맡는다. 행사 지원요원들은 참가 대표단의 출입국, 숙박, 등록과 기자단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홍보요원 선발도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 'G20 영 앰배서더' 60명은 7월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발대식을 갖고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개최 의의와 중요성, 의장국으로서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해왔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활동을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선발한 '청사초롱 e-리포터(약 1백명)'를 뽑았다. 이들은 11월 말까지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콘텐츠를 취재하고 온라인과 모바일 개인미디어를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 홍보활동을 펼친다.

한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을 널리 알리고자 서울시는 11월 9~12일 국내외 취재진을 대상으로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디지털미디어시티 ▲친환경 난지한강공원 ▲청계천·광화문 등 6개 코스를 돌아보는 '프레스투어'도 운행한다.

"이제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남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가는 '룰-테이커(Rule-taker)'에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개최국으로서 '룰-메이커(Rule-maker)'가 될 것"이라는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의 말이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G

글 · 박경아 기자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www.seoulsummit.kr
비즈니스 서밋 준비위원회 www.seoulg20businesssummit.org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회의**

| 일시 | 장소 | 주요 일정 |
|---|---|---|
| 6월 4, 5일 | 부산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
| 7월 21, 22일 | 서울 | G20 셰르파 회의 |
| 9월 1, 2일 | 서울 | IMF개혁 실무그룹 대면회의 |
| 9월 3일 | 서울 | 글로벌 금융안전망 전문가그룹 대면회의<br>신흥국 금융 컨퍼런스 |
| 9월 4, 5일 | 광주 |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
| 10월 14, 15일 | 인천 | G20 셰르파 회의 |
| 10월 22, 23일 | 경주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
| 11월 10, 11일 | 서울 | 비즈니스 서밋 |
| 11월 11, 12일 | 서울 | 제5차 G20 정상회의 |

우리도 G20 정상회의 주인공! 지난 7월 26일 서울 삼청동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사공일 준비위원장과 인터뷰를 가진 〈어린이동아〉 〈소년조선일보〉 〈소년한국일보〉 어린이기자 20명이 G20 정상회의 참가국 국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행사지원 쇄도… 곳곳서 모의 회의… 세미나·포럼

# 온 국민 참여 신명난 잔치로 자리매김

**선진국과 신흥국, 국제기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잔치로 확산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개최하는 공모전과 행사에 관심이 쇄도하고, 다양한 G20 관련 행사가 열려 G20와 소통하고 참여하는 폭과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건 뭥미?"

'이건 무엇?'이라는 뜻을 지닌 '인터넷 용어'를 빌리자면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세계 경제침체를 막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한 G20 정상회의는 한동안 우리에게 '이건 뭥미' 수준으로 낯설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5차 정상회의(2010년 11월) 개최국이자 2010년 의장국으로 결정되면서 G20 정상회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한국이 지구촌 좌장으로서 주도권을 행사할 무대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G20 정상회의에 관한 최근의 관심 확산은 자원봉사자 모집 현장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 자원봉사자 1만2천여 명 신청… 소요 인원 130% 선발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G20 정상회의 지원단의 정상옥 주무관은 지난 7월 5일부터 G20 행사 지원요원 모집 신청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다. 마감 날까지 1만2천3백명이 신청했고, 마감 날이 지나서까지 계속 신청자가 몰려 약 1만5천명이 지

원한 것이다. 행사 지원요원으로 선발된 7천3백여 명도 실은 소요 인원의 1백30퍼센트를 선발한 것이다.

정 주무관은 "만 17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성인들이 많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실제로 고등학교 2, 3학년인 10대가 약 1천8백명, 20대가 약 2천8백명으로, 마감날을 기준으로 전체 자원봉사 신청자의 약 40퍼센트에 달했다"며 젊은 층에 부는 G20 정상회의 열기를 전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7월 선발한 민간 의전요원도 1차 서류전형에만 1천5백여 명이 몰렸으며 이 중 57명이 최종 선발돼 경쟁률이 26 대 1에 달했다.

준비위원회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지난 5월까지 접수한 심벌 및 슬로건 공모에는 총 1만5천3백28명(심벌 2천2백79건, 슬로건 1만3천49건)이 응모해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곳곳에서 각종 기관과 학교 등 주최로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모의 G20 정상회의도 개최됐다.

지난 8월 20일에는 서울 서초구 주최로 관내 초등학생 25명이 참가하는 '어린이 모의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행사장에는 각국 국기가 내걸렸고, 참가 학생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등 각기 G20 참가국의 정상이 되어 토론을 벌였다.

8월 10일부터 나흘간 고려대에서는 고려대와 〈YTN〉 공동 주최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7백여 명이 참가한 '모의 G20 정상회의'가 개최돼 영어 토론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7일에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주한 외국인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롯데호텔 주최로 'G20 모의 정상회의'가 열려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세계인의 관심 사임을 방증했다.

세미나나 포럼에서도 G20이 화두다.

여성가족부는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BPW KOREA)과 '기업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과 여성권한 강화를 위한 WEP 국제 세미나'를 9월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성의 지위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평화통일포럼과 코리아정책연구원은 9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G20 정상회의와 한반도 평화통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날 'G20 정상회의와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도전요인으로 군사적 긴장 고조와 대남 유화책이라는 상반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며 "북측이 도발 또는 공세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국제행사의 성공보다도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이끄는 비결"이라고 주장했다.

### 어린이·청소년이 참가한 '모의 G20 정상회의'도 열려

길정우 전 〈중앙데일리〉 발행인은 'G20 정상회의와 글로벌 외교'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 속에 어디쯤 자리하고 있으며 또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기를 희망한다"며 서울 G20 정상회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작용할 것을 기대했다.

한편 해외의 관심도 높아 조스팽 전 프랑스 총리, 빔 콕 전 네덜란드 총리 등 전직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들의 모임인 마드리드클럽이 9월 1일 서울에서 원로 정상회의를 열고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인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대학생들로 구성된 'G20 영 앰배서더' 60명은 대사관 방문, 블러그 운영 등을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알린 활동을 모아 8월 31일 보고대회를 가졌다.

### 2008.09
###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세계적 투자금융회사 리먼브라더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로 2008년 9월 15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세계는 경기침체에 빠져들었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의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선진국과 신흥국 간 국제협력을 위해 결성된 G20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해졌다. G20은 기존의 선진국 중심 G7(1976년 결성)에 신흥국 12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것으로, 그동안 재무장관회의가 열려왔다.

### 2008.11
### 워싱턴 G20 정상회의

미국은 2008년 11월 15, 16일 G20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일종의 '태스크포스' 성격인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합의했다. 또 국제 금융기구 개혁 등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대 공통원칙과 47개 중·단기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G20 의장국 주도로 이행 실적을 차기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 정상회의의 의장국은 브라질이었다.

### 2009.04
### 런던 G20 정상회의

2009년 4월 2, 3일 영국 런던에서 제2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기존 합의 성과 점검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조치 마련이 주요 의제였다. 이 자리에서 G20 정상들은 악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성장과 고용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까지 늘리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기존의 금융안정포럼(FSF)을 확대 개편한 금융안정위원회(FSB)를 발족시켰다. FSB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해 경제위기 조기경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가 있기까지…

# 10大 이슈로 본 G20 略史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 뒤 세계 각국은 위기 탈출에 매진해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 중심에 G20 정상회의가 자리 잡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탄생시킨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부터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10대 이슈 중심으로 살폈다.

글 · 박경아 기자

### 2010.08
### 글로벌 금융안전망 1단계 합의

8월 30일 IMF는 이사회를 개최해 한국 주도로 추진된 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해 이번 개선안이 합의됨에 따라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작업도 진전을 이루게 됐다. 이번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개선방안 마련, 각국 이해조정 등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이 IMF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009.09
##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2009년 9월 24,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는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확정했다. 2010년 6월 캐나다, 같은 해 11월 한국, 2011년에는 프랑스에서 각각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연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G20을 세계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규정했다. 출구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경제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재정지출계획 이행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 2010.06
## 부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2010년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처음 주재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로 6월 4, 5일 부산에서 개최돼 한국이 주도한 초안을 대부분 반영한 성명서를 도출했다.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를 목전에 두고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여서 무게감을 더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국내, 지역 간, 다자 간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했으며 IMF의 대출제도 개선 등 구체적 정책대안을 성명서에 명시했다.

## 2010.06
## 토론토 G20 정상회의

2010년 6월 26,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은행자본 유동성 규제, 대형 금융기관(SIFI) 규제 등을 서울 G20 정상회의 시 마무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도국 경제개발, 무역자유화 등과 함께 한국이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 '국제 경제협력의 최상위 논의의 장'으로서 G20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했다.

SEOUL G20 BUSINESS SUMMIT

## 2010.10
##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회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10월 22, 23일 경주에서 개최된다. 앞서 9월 5, 6일 광주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를 기초 자료로 삼아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신흥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유동성 규제 등 금융규제 개혁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2010.11
##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인 11월 10, 11일 1백여 명의 세계적인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정부 주도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인 'G20 프로세스(Process)'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 부문 정상회담'이다. ▲무역과 투자 ▲녹색성장 ▲금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 분야로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별로 3개의 하위그룹을 만들어 모두 12개 주제별 사전 논의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사전회의에서 취합된 12개 주제별 합의안은 비즈니스 서밋을 거쳐 G20 정상회의에 상정된다.

## 2010.11
## 서울 G20 정상회의

11월 11, 12일 서울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국이 유엔 가입 19년 만에 국제무대의 좌장이 됐다는 점에서 외교사적 의미가 크다. 과거 네 차례 정상회의가 '경제위기 탈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를 위한 방향이 제시되는 자리로,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국제 협력체제(프레임워크)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지난 회의의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좀 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의장국이자 주최국인 한국은 이 회의를 앞두고 개발의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보 등 신흥국과 개도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해왔다.

기고 / 김희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 "의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서민 체감경제와 직결"

조영철 기자

9월 15일은 이른바 '리먼 사태'가 발생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2년 전 이날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사실 이 당시 금융위기는 어떤 의미에서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했다. 세계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심화되면서 위기 규모도 더 커지고, 확산 속도도 훨씬 빨라졌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공황 때와 달리 긴밀한 국제공조가 존재했고, 그 중심에 G20와 같은 기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당초 G20 정상회의는 2008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협의기구로 출발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후 세계경제의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됐다.

우리나라는 바로 그런 G20의 일원이자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경제의 주변부 국가이자 선진국들이 만든 질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위치에서 이제 그 질서의 '능동적 주도자'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 모토인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이라는 말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함축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지역과 계층 간 포용의 의미도 아우르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경험했듯이 경제위기의 피해자는 사회경제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다.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를 방지해 서민에게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G20 정상회의 의제들은 서민경제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유가와 식량 문제도 중요 의제 중 하나다. 특히 이번 서울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의제로 주장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문제는 서민경제와 직결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을 제거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서민의 경제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글로벌 금융체제 불안정성 제거로 서민 경제적 삶 보장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와 지속성장, 그리고 금융기구 개혁 등과 같은 기존 의제 외에 의장국으로서 금융안전망의 강화, 개발 이슈 등 새로운 의제들도 다루게 된다. 특히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국가 간 경제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통한 빈곤 퇴치, 외환 및 금융위기 극복 경험 등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세계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세계경제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일이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모두 2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쏘나타 승용차 1백만 대 수출효과와 맞먹는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G

02-390-2008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직통전화 개통

본 전화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전용입니다

**『신고 포상금제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액 : 최고 2,000만원)

- **상담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09:00 ~ 18:00)**
- **신고 접수 건 처리 :** 신고접수 ➡ 부당청구 사실확인 ➡ 부당금액 확정 ➡ 포상금 지급
- **전화연결 방식 :** 신고 전용 전화는 ① 번 누름 ➡ 본부 담당자 직접 연결
  그 외 업무는 ② 번 누름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고객센터 연결

# 대한민국을 찍어라!

제4회 대한민국 동영상 UCC대상

2010년 9월 6일 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기간 ::** 2010. 9. 6. ~ 10. 29.

**모집분야 ::** 추천 및 공모부문
- 추천부문 : 후원 포털사 및 UCC 서비스기업 추천작 중 우수작 선정
- 공모부문 : 주제 분야에 맞는 신규UCC 공모작 중 우수작 선정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 www.koreaucc.or.kr을 참조하세요

**공모부문 참가 대상 ::**
대한민국의 모든 거주자(재외국인 포함)로 개인 또는 팀(4인 이내) 구분없이 참가 가능

**공모부문 주제 ::**
- (관광) 대한민국을 소개합니다.
- (체육) 다시 날자! 국가대표 세계를 향해!
- (문화) 함께 걸어보아요~
- (구직) 세상에 나를 알려라!

**참가방법 ::**
- 접수방법 : 행사 홈페이지 접수 (www.koreaucc.or.kr)
- 파일형식 : 동영상 (wmv형식) / 680 * 480 픽셀 / 3분 이내 / 100MB 이내

* 수상작은 추후 고화질 원본 파일 (AVI, MPEG등) 제출

**시상내역 ::**
- 대 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공모부문(2편) 추천부문(2편) 각 300만원
- 최우수상 : 공모부문(4편) 추천부문(4편) 각 150만원
- 우 수 상 : 공모부문(6편) 추천부문(6편) 각 50만원

*시상식은 12월 9일 예정

# 4대강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강 흐름을 막았던 퇴적물을 걷어내고
콘크리트 제방을 우리 꽃과 풀이 자라는
생태호안이 대신합니다.
빗물을 저장하는 '큰 물그릇' 보(洑)가 물 부족의 시름을 덜면서
수문을 갖춘 가동보가 홍수 걱정을 날려보냅니다.
되살아난 강물이 저 멀리 바다까지 건강하게 만들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삶의 터전으로 거듭나는 4대강,
4대강살리기는 이렇게 생명의 보금자리를,
자연과 문화가 만나는 행복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4대강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 전문가와 주요 언론이 바라본 '4대강살리기'

# 4대강살리기는 治水의 미래

일부 환경운동가와 전문가 집단, 정치권에서 전체 공정의 30퍼센트가량 진행된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 하천관리의 필요성에 눈뜨거나 강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절실함에 귀 기울인 언론 사설과 칼럼, 기고문들은 4대강살리기가 필요하다고, 대한민국 치수(治水)의 미래를 보라고 말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흙과 물이 만나는 친환경 호안이 조성된 경기 여주군 대신면 양촌리 지역 한강변의 평화로운 모습.

지난 7월 18일 중부지방의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한의 황강댐 수문이 열렸다. 지난해 9월 초 북한이 통고도 없이 불시에 황강댐을 무단방류해 남한지역에서 6명의 인명이 희생됐던 터라 우리 정부와 임진강 유역 주민들은 바짝 긴장했다. 북한 측이 이날 초당 최대 4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방류했으나 우려했던 홍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이현 경복대 건설환경디자인과 교수는 〈서울신문〉에 실은 '군남댐 조기 완공의 의미'라는 기고문(8월 12일자)에서 이 일을 언급하며 "가장 큰 공(功)은 군남홍수조절지의 조기 완공(지난 6월 30일 · 당초 2011년 8월 예정)"이라며 "4대강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하천공사의 신속한 추진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홍수 피해에 하루라도 빨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다른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한 글들이 최근 이어지고 있다.

### "하천공사 신속한 추진은 홍수 피해 예방책"

〈조선일보〉는 '5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에 꼽힌 인천공항을 보며'라는 사설(5월 14일자)에서 "1993년 공항 서비스 평가가 시작된 이래 한 공항이 5년 내리 1위에 오른 것은 인천공항이 처음"이라며 1990년 정부가 바다를 매립해 인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반대운동에 나서 '악담성 비판'까지 받았던 일을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반대 상황과 비교했다.

이 사설은 "요즘 4대강 사업 반대에 앞장서는 서울대의 한 교수는 '갯벌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지반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과학'을 들먹이며 반대했었다"고 회고했다.

〈동아일보〉는 '새만금을 돌아보며 4대강을 내다본다'라는 사설(4월 27일자)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과거 국책사업들에 대한 반대 사례를 돌아보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반대가 곧 애국인양 착각한 사람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며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나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는 환경단체와 일부 종교인의 반대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비용이 늘어났다. 환경근본주의와 반대지상주의가 결합하면 과학적, 경제적 분석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의 '이태동 칼럼(5월 25일자)'도 '비판의 江 선동의 江'이란 제목으로 "규모가 큰 국책사업은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거쳐 예산이 집행되어 지금 진행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하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토해내는 것은 일시적 선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중단시키면 治水(치수)는 누가 하나'라는 제목의 또 다른 사설(7월 20일자)에서도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치수(治水)와 수자원 확

보" 라며 "야당은 만약 4대강 사업이 중단되면 치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4대강 사업 중단 공조에 합의한 야당의 '대안 없는 비판'을 비판했다.

이상천 경남대 나노공학과 교수는 〈서울신문〉에 실은 '유엔사막화 방지협약회의(NCCD) 유치 녹색성장 본보기 되길' 이란 기고문(2월 2일자)에서 "지구 대기의 균형이 깨지면서 드러난 물 폭력을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물 관리가 필요해졌다" 며 "국가 물 관리의 대표주자격인 4대강 사업은 국가적이면서 지역적으로 물 관리(치수·治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역설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국가 차원 치수관리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4대강살리기 기대, 노력·위기관리로 충족시켜야"**

〈세계일보〉에 실린 김영원 주(駐)네덜란드 대사의 '물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이라는 기고문(2월 9일자)은 물을 관리하고 낮은 땅을 간척하는 남다른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네덜란드 사례를 전하며 "네덜란드는 많은 하천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면서 하천을 정비했다. 네덜란드의 사례를 미루어볼 때 10년 후쯤 우리도 4대강살리기 사업을 잘 추진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2000~2003년 미국 플로리다의 에버그레이드 국립습지복원(CERP)

4대강살리기와 관련한 칼럼과 사설, 기고문들.

사업에 참여했던 재미 수자원 전문가 이상원 씨는 〈조선일보〉에 실은 '美(미) 플로리다 강 살리기는 성공했다' 라는 기고문(6월 17일자)에서 CERP 사업도 시행 초기 많은 환경단체의 반대를 받았으나 지역사회의 열망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결과 수자원 확보와 홍수 통제는 물론 주변 생태환경이 복원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소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글에서 "아쉽게도 한국의 수리시설로는 전체 수자원의 35퍼센트 정도만 이용할 수 있고 홍수 통제도 쉽지 않다. 현재 35퍼센트 정도의 수자원 저류량은 10억 톤 정도인데 한국의 수자원 기술자들이 산출한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보면 저류량을 2배 정도 높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씨는 또 "기술적으로 수자원을 저장하는 데는 보(洑)가 필수적" 이라며 "플로리다의 CERP 사업에서는 무려 10.7마일에 달하는 보를 만들어 에버그레이드 국립습지복원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에릭 호프먼 서울시 외국인 투자자문회의(FIAC) 부위원장은 〈매일경제〉에 실은 '한강에서 보는 또 다른 기적' 이란 기고문(2월 6일자)에서 "똑같은 모양의 고층 아파트와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로 제 모습을 잃었던 한강은 2007년부터 시작한 '한강르네상스'를 통해 활력을 찾고 있다. 거대하고 바쁜 현대 도시의 대명사인 서울의 한강이 빠르게 자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 라며 한강에 '두 번째 기적' 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김애옥 동아방송예술대 방송극작과 교수는 〈국민일보〉에 실은 '한강 르네상스' 라는 글(4월 12일자)에서 파리의 센강, 네덜란드의 라인강, 일본 오사카의 요도가와, 영국의 템스강 등의 모습을 소개하며 특히 "우리의 한강과 유사한 면이 많은 영국 템스강의 경우 오랜 세월의 전통적 모습을 강 주위에서 볼 수 있으면서도 과감한 투자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수변 문화공간의 다양성과 예술성을 갖추려면 장기적인 문화 투자가 우선 보장돼야 할 것" 이라며 "템스강가의 '2002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같은 문화복합공간을 한강공원에서 머잖아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리다 시민과 시의 노력으로 되살아난 울산 태화강.

보게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중앙일보〉 칼럼 '이철호의 시시각각'은 '성지순례 코스가 된 함안보'라는 글(5월 13일자)에서 야당과 환경단체의 '성지순례 코스'가 된 함안보 상황을 전하며 "지난 50년간 낙동강은 제방만 높이 쌓았지 바닥을 준설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들판보다 높아진 강바닥은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다. 외지인들은 '4대강 결사반대'만 외치고 가면 그만"이라며 현지 민심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에겐 생활이자 삶의 터전이다. 그들끼리는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인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강바닥을 더 깊게 준설해야 한다'고."

### "사람이 아프면 치료하듯 강도 근본적 치료 필요한 때"

양성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은 〈중앙일보〉 시론(6월 26일자)에서 '영산강은 죽었다'는 글로 자신의 어린 시절 '시퍼렇게 펄펄 뛰며' 살아 있던 영산강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 강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싱싱하고 아름다웠다. 드넓은 강물 위에 여기저기 그물을 던지는 고깃배가 널려 있었고 밀물과 썰물 때를 따라서 오르내리는 화물선들이 줄을 이었다. 말 그대로 그 강은 그곳 기름진 평야지대의 숨길이요, 젖줄이요, 어머니였다."

그는 "1981년에 하구언을 쌓게 되면서 강이 죽고 껍질만 남았다"며 "마치 사람이 병이 깊으면 치료받고 수술받아야 하듯 근본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서울신문〉의 구본영 수석논설위원은 '서울광장' 칼럼(8월 12일자)에서 '금호강은 시나브로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말 금호강을 찾았다. 유년기의 추억이 어린 낙동강의 지류다. 이맘때쯤 참외랑 오이를 띄워 놓고 친구들과 헤엄치던 그 맑은 강물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찾은 강은 그때와는 너무 달랐다"고 전했다.

"상류서 실려온 토사와 쓰레기 등이 켜켜이 쌓인 오니로 거의 하수구와 진배없었다"고 금호강의 실상을 표현한 그는 "강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 무위론은 무지하거나 정치적 의도가 깔린 사고이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살리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담은 글도 있었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에 실은 '4대강, 홍수·수질사고 위험 대비해야'라는 글(3월 6일자)에서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사 중 홍수 발생 ▲공사 중 수질사고 ▲공사 종료 후 수질사고 등을 '위험인자'로 지목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포스트 4대강의 수질 관리를 위한 최선의 대비는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으로 3차원 수리·수질모델을 상시 운영하는 수질감시체계의 구축"이라며 "그래야 오염사고 시 오염물질의 확산 속도와 범위, 농도, 취수원까지 도달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산정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경로를 역추적하여 원인 제거가 가능하다"고 제언하며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다.

"4대강에 거는 '좋은 물'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최선의 노력과 위기관리로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G

정리 · 박경아 기자

경기 여주군 대신면에 들어선 이포보. 잇단 호우로 불어난 강물이 잘 빠지게 하려고 승강식 수문이 위로 올라가 있다.

## 여주군 이포보·강천보 건설 현장

# "태풍 피해 없었던 것, 한강살리기 사업 덕분"

**경기 여주군은 폭우와 태풍이 몰아칠 때면 물난리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고질적인 침수지역이다. 그러나 치수를 위한 한강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게 됐다. 전체 공정률은 이제 30퍼센트를 조금 넘었지만 기대효과는 벌써부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쯤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막상 떠나려니 마음이 무겁다. 태풍 '말로'가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는 데다 서울·경기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거라는 일기예보가 겹친 탓이다. 9월 6일, 아침까지 멀쩡하던 서울 하늘을 믿고 경기 여주군으로 출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을 벗어나자 빗방울이 굵어지더니 고무호스로 뿜어내는 것 같은 장대비가 쏟아진다. 한바탕 거칠게 퍼붓는 비 세례를 뚫고 달리니 어느덧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강천보 건설 현장이다.

한강 여주4지구의 꽃인 강천보는 충주댐과 팔당댐 사이의 중간지점인 남한강 상류에 자리하고 있다. 총길이가 4백40미터로 9개의 교각을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보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6개 교각을 세웠는데 그 하단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성순 강천보건설단장은 "보를 설치하기 위한 자리"라며 "강천보는 한강에 설치되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는 3개 보 중 유일하게 회전식 수문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수문 운영 방식을 평상시, 수위조절 시, 홍수 시, 배사 시 등 크게 4가지로 나눠 상황에 맞는 운영과 이·치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강천보의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위는 홍수위보다 한참 밑이다. 지난주에 전국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와 이날 내린 호우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은 듯했다. 박 단장은 "준설 공사로 홍수위가 70센티미터쯤 낮아진 덕분"이라며 "한강 여주4지구 사업이 끝나면 홍수위를 약 1.5미터까지 낮출 수 있다. 14.4킬로미터에 달하는 제방을 정비해 홍수에 취약한 여주지역의 수해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강 여주4지구의 전체 공정률은 9월 현재 33퍼센트를 조금 넘었지만 하도 준설공사는 50퍼센트가 진척됐다. 그 덕에 물길이 넓어지고 깊어져 이 지역은 올해 아무런 물난리도 겪지 않았다. 1972년, 1990년, 2006년에 대규모 홍수 피해를 경험한 지역민들은 "이번에 태풍 피해가 없었던 것은 강살리기 사업 덕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 강천보, 3개 보 중 유일한 회전식 수문 도입

여주군 어촌계장 구본경 씨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아내가 강천보 인근에서 매운탕 집을 운영하는데 몇 년 전 홍수로 1층이 모두 잠겨 큰 피해를 봤다"며 "내년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어획이 금지돼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강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만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공사가 덜 끝난 교각 주변에는 주황색 플라스틱 통들이 일렬로 떠 있다. 수질오염을 막는 오탁방지막이 가라앉지 않도록 지탱해주기 위해서다. 공사 구간과 인근 취수장 등에는 실시간 수질 감시를 위한 고정식 수질측정장치가 설치돼 있다.

강천보건설단 윤석영 차장은"공사 현장에서는 빈틈없이 수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틈틈이 한강유역환경청, 여주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수질오염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리를 옮겨 이호대교 인근에 마련된 공원 조성지와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가 있는 강천섬을 둘러봤다. 단양쑥부쟁이는 국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풀로 멸종위기종 2급 보호식물이다. 이 귀한 식물의 자생지를 공사 도중 발견한 강천보건설단은 공구 내 삼합지구와 굴암지구에서 자라던 3만여 포기를 지난 4월 입지조건이 유사한 강천섬의 대체서식지로 옮겨 심었다.

이식된 단양쑥부쟁이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적응하기도 전에 일부 언론이"말라죽었다"고 보도해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접한 대체서식지의 단양쑥부쟁이는 척박한 자갈밭을 비집고 나와 작게는 20센티미터, 크게는 50센티미터 넘게 자라 있었다. 윤 차장은 "단양

**여주1지구 장재헌 현장소장**

## "이중 오탁방지막 설치로 불순물 유입 막아"

경기 여주군 대신면의 이포보 건설 현장은 최근까지 환경단체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농성이 이어져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를 경험했다. 이러한 '외압'을 막아낸 것은 바로 여주 군민들이다. 여주군내 10개 읍면 주민 3천여 명은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열고 이포보 농성 해제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여주1지구 장재헌 현장소장은 "한강살리기 사업은 이 지역에서 잦은 수해로 고통 받아온 여주군민의 염원"이라며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공사 초기에는 일부가 훼손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생태하천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환경단체가 한강살리기 반대 농성을 했을 때 주민 반응은 어땠습니까.**

농성 초기에는 관망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들을 지지하는 방문 시위가 연일 계속되자 타 지역 사람들의 반대의사가 마치 여주지역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찬성 캠프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 농성이 실제 공사에는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농성 초기에는 이포보 주변의 모든 공사가 중단되고 직원들도 현장에 투입되느라 전체 공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직원들은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현장을 지키며 정문 경계근무를 병행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이 지쳤을 텐데도 하루빨리 공사를 정상화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공사 중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구간 하류부에 이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하도 준설 구간에도 침사지와 이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흙탕물과 불순물의 유입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수질 측정 결과 탁도 관리 기준치인 40NTU보다 훨씬 낮은 7~16NTU로 나타났습니다. 수질 측정은 탁도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자동 측정되고 관리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수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습지 2개소는 보전하고 3개의 인공습지를 추가로 조성할 것입니다. 강변의 경사면인 저수호안에는 콘크리트 블록 대신 자갈과 모래를 사용하고, 물이 부딪쳐 침식이 일어나기 쉬운 수충부 대부분에도 친환경 생태블록을 설치했습니다. 친환경 어도(魚道)와 저수호안에는 하천변 식생대를 조성해 현재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어류와 조류가 서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강 여주1지구 강변에 조성된 둔치(왼쪽). 강천섬 대체서식지로 둥지를 옮긴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가 척박한 자갈밭을 뚫고 쑥쑥 자라고 있다.

쑥부쟁이는 자갈밭에서 자생하고 다른 종과 어울려 살지 못하는 특이한 식물"이라고 귀띔했다.

다시 차로 10여 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한강 여주1지구 이포보다. 여주군 대신면에 자리한 이포보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보로 꼽힌다.

"보는 직선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구조물의 경관성과 조형미를 갖춘 곡선형 보입니다. 또 대부분의 보가 멀리서 바라보는 하천시설물인 데 반해 이포보는 16개 보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직접 보 구조물에 접근해 친수·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한강 여주1지구의 시공을 맡은 대림산업 김용준 홍보소장의 설명이다. 이포보 양 끝에는 고정보(2백96미터)가 설치되고 그 사이에는 6개 수문이 위아래로 움직여 수량을 조절하는 승강식 가동보(2백95미터)가 메우게 된다. 현재 좌안의 고정보와 물놀이가 가능한 원형의 수중광장, 한 개의 가동보까지 만들었는데 이날은 강물이 불어 수중광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가동보의 수문이 불어난 강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맨 위까지 올라가 있다. 교각 주위 수면에는 노란색 구명 튜브들이 흩어져 있었다. 최근 이포보의 교각 위를 점거하고 4대강살리기 반대 농성을 벌인 환경단체 사람들의 안전 문제를 염려해 공사 현장 직원들이 갖다 놓은 안전장치였다.

한강 여주1지구에 새롭게 조성된 둔치를 보러 가는데 굴착 공사가 한창인 여러 대의 굴착기와 인부들이 눈길을 붙든다. 옆에 있던 대림산업 박종고 홍보부소장은 "1천3백89만 제곱미터 규모의 강변저류지를 만들고 있다"며 "강변저류지는 불어난 강물이 자연스레 흘러들어 홍수가 나지 않도록 돕는 구실을 한다"고 말했다.

잠시 후 강변을 따라 조성된 둔치를 만났다. 울퉁불퉁한 강변을 다듬고 강둑에 쌓인 퇴적토들을 걷어내 만든 둔치에는 아득한 초원이 펼쳐져 있다. 마치 조경사가 가꾼 정원처럼 깔끔하고 아늑해 보인다. 그런데 이곳을 뒤덮은 식물 중 인공적으로 심은 것은 듬성듬성 서 있는 몇 그루의 나무들뿐이라고 한다.

### 이포보, 경관성·조형미 갖춘 곡선형 보로 설계

"예전에 이 강변은 폭우가 내리면 범람하고 비가 그치면 사방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로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한 지 4,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온갖 풀들이 자라 푸른 들녘을 이루고 더는 쓰레기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박종고 홍보부소장)

대신면 천서리부터 당산리까지 9킬로미터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고 있는 한강 여주1지구 전체 공정률은 9월 현재 35퍼센트다. 당초 목표치(31.8퍼센트) 대비 1백10퍼센트의 실적을 달성했다. 대림산업은 오는 11월까지 하도 준설 등 기본공사를 끝낸다. 이에 앞서 10월부터는 생태광장, 문화광장, 자전거도로, 친환경 어도 등을 조성하는 조경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나같이 한강살리기 사업이 예정대로 잘 끝나 여주군이 수도권의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염원했다. 여주군 대신면 초현3리 이용기 이장의 말이 돌아오는 내내 귓전에 맴돌았다.

"2006년에 여주 시내가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한강 본류가 홍수에 안전하리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요즘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졌을 뿐 아니라 각지에서 수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심은 화를 불러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 하천에 수변공간을 만들게 된다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여주지역도 함께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김춘석 여주군수

# "4대강살리기는 여주 발전의 다시없는 기회"

"1천5백 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다."

김춘석(60) 여주군수가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기회만 되면 하는 말이다. 그가 '주문'처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여주 발전에 '다시없는 기회'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강살리기 여주 구간에 투입되는 사업비 1조9백억원은 4대강살리 사업 전체 비용의 약 5퍼센트. 여주는 4대강살리기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7월 시작된 민선 5기 군정 슬로건을 '여주군,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고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주는 오랫동안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고, 다른 하나는 잦은 홍수입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은 홍수 예방과 수변 개발로 여주가 발전할 기회입니다. 여주가 세상에 알려진 이래 1천5백여 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죠. 이 때문에 군정 슬로건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강살리기 사업 이후 어느 정도의 홍수 예방효과가 기대되나요.**

여주의 3개 보는 강천 상류에서 이포 하류까지 지반의 편차가 큰 지역 특성을 감안해 하천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장소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하천 준설로 수위가 1.0~1.9미터 낮아지고 물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2백 년 만에 한 번 오는 규모의 홍수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환경운동가 3명이 40여 일간 이포보 불법 점거농성을 벌였는데.**

법원에서도 지난 8월 20일 '이포보에서 농성중인 4대강 반대 농성자들은 떠나라'는 결정을 내려 여주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펴는 것은 환경운동단체들의 독선이고 아집입니다. 소수의 편향적인 생각으로 전체의 이익을 훼방 놓는 행위가 있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환경은 보존되어야 하지만 지역 발전이 없으면 환경보호와 녹색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존과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실행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8월 21일 여주군민 3천여 명이 4대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열어 화제가 됐습니다.**

여주군민들은 홍수 피해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바쁜 일을 제쳐두고 자발적으로 인간 띠 잇기 행사에 참여한 군민들을 보고 우리 여주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과 여주 발전 간 연계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이포보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품 보이며, 바로 옆 천서리는 신라시대에 축성한 파사성과 막국수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강촌보는 신륵사와 불과 2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한강살리기가 끝나고 2015년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이 연장되면 여주는 서울이나 성남시 분당구 등지에서 전철로 이동해 즐길 수 있는 문화역사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조성되는 낙동강 상류 구간

# 천혜의 절경 자전거 타며 즐긴다

경북 안동시에서 출발해 대구광역시로 이어지는 낙동강 상류 구간에서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한창이다. 낙동강변의 절경을 따라 달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 관광객을 불러 모을 친환경 수변공간과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낙동강 상류 구간을 돌아봤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낙동강은 경북 안동과 상주를 지나며 천하절경을 이룬다. 경북 내륙 곳곳을 적시는 낙동강의 완만한 물길은 강 우안에 하얀 백사장을, 물길이 굽이치는 좌안에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을 만나 빼어난 경관을 선사한다.

낙동강변에 자리한 안동과 상주 곳곳의 절벽에는 정자가 많다. 정자에 오르면 낙동강의 수려한 풍경에 절로 감탄사가 나오게 마련이다. 퇴계 이황, 서애 류성룡 등 조선의 대학자들은 이러한 낙동강의 절경을 벗 삼아 조선의 성리학을 완성하고, 이 학문을 백성과 함께하는 정치에 접목하려 애썼다.

낙동강살리기 사업 현장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사진은 경북 안동시 낙동강 둔치의 식물 군락지.

**낙동강의 8개 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경상북도
낙동강
칠곡보
강정보
대구광역시
달성보
합천보
경상남도
함안보

자동차가 아니면 만나기 힘들었던 낙동강의 절경을 이제 자전거로 감상하며 즐길 날이 멀지 않았다. 9월 6일 찾아간 낙동강살리기 각 공구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낙동강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수변공간과 자전거도로 설계가 한창이었다.

오는 10월 최종 설계를 마치고 연말쯤 착공 예정인 낙동강변 자전거도로는 안동댐에서 시작해 상주, 낙단, 구미, 칠곡, 강정, 달성, 합천, 함안보 등 낙동강 8개 보를 따라 강변 양쪽에 만들어진다. 자전거도로의 폭은 평균 3미터(왕복 2차로)이며, 도로의 총연장은 2백60킬로미터에 이른다.

### "전망대형 홍보관, 강 경치 감상하는 지역 명물 될 것"

보와 자전거도로가 건설된다는 소식에 강 주변 주민들의 기대는 크다. 상주시 낙동면에서 만난 김일훈(52) 씨는 "낙단보가 완공되고 자전거도로가 완공되면 관광객도 늘어나 낙동면 낙동강변에 밀집한 한우전문식당 등에 손님이 늘지 않겠느냐"고 환영했다.

낙동면의 절경과 어우러진 낙단보에는 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형 홍보관 건설도 한창이다. 홍보관을 만들고 있는 두산건설 이종렬 부장은 "인근 정자와 함께 홍보관은 강의 경치를 감상할 지역의 명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단보를 지난 물길은 구미보로 이어진다. 9월 초 현재 공정의 65퍼센트가 진행된 구미보는 구미시 선산읍과 해평면의 경계를 이루며 야트막하게 솟은 선산읍 쪽의 산과 마주한 낙동강 물길과 잘 어울리는 경치를 이룬다.

구미보는 낙동강 수호라는 콘셉트를 담아 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수호의 상징인 용을 응용해 만들며 거북이 등껍데기 형상의 지붕을 설계한 중앙 전망타워에서 3백60도 방향으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구미보 건설현장 포스코건설 최준영 부소장은 "구미보는 설계 당시부터 선산읍 등 강 주변 풍광과 어울리도록 했다"며 "공도교가 완공되면 강물로 단절됐던 지역을 잇는 새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메카' 구미시를 돌아 구미공단의 젖줄이 된 낙동강은 칠곡, 성주, 고령을 거쳐 대구 시내를 지난 금호강과 만난다. 여

구미시청

구미보는 9월 초 현재 공정의 65퍼센트가 진행됐다. 보 완공 후 중앙 전망타워에서 주변 경치를 조망할 수 있다.

기부터 낙동강은 폭 1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강이 되고, 좌·우안 곳곳에 습지를 이룬다.

**낙동강변 자전거도로는 안동댐에서 시작해 상주, 낙단, 구미, 칠곡, 강정, 달성, 합천, 함안보 등 낙동강 8개 보를 따라 강변 양쪽에 조성된다. 낙동강을 따라 총연장 2백60킬로미터를 자전거로 시원스레 달릴 수 있는 길이다.**

낙동강의 하류가 시작되는 강정보와 달성보 주변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이다. 강 주변에 형성된 풍부한 습지를 잘 보존하고, 물과 어우러진 수변공간 및 문화공간을 조성해 대구 및 경북 성주, 고령군민의 휴식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공도교는 강물로 단절됐던 지역 잇는 새 길"

강정보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20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성토(흙을 다지는 작업)가 한창이다. 10월 말까지 성토작업이 완료되면 나무 식재 등 본격적인 조경사업을 하게 된다.

강정보 주변에는 동락골, 고령, 하빈지구 등 3곳에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보 앞쪽 삼각지점에는 시민들이 휴식, 레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납자루 등 이 지역에 서식하는 어종을 위한 어도도 만들어진다. 한국수자원공사 강정보건설단 조영대 팀장(공학박사)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강정보에 물, 사람,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공간이 들어서고 낙동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집중호우만 내렸다 하면 수해를 입기 일쑤였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 및 경북 고령군 개진면 등 낙동강 하류에는 달성보가 설치돼 수해를 방지한다. 달성보 옆에 조성될 어도공원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전망이다.

현재 20퍼센트 안팎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달성보 및 어도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달성보건설단 김성효 차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수변공간 조성과 물고기가 지날 수 있는 친환경 어도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G

글 · 공감코리아(korea.kr) 제공

남유진 구미시장

# "낙동강살리기는 글로벌 산업도시 위한 발판"

경북 구미시는 지난 7월 진평동에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경상북도 낙동강 녹색체험관'을 열고 내년부터 도심에 낙동강 물을 끌어들이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발 빠르게 앞장서고 있다.

남유진(57) 구미시장은 "구미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보의 공정률과 완공 후 기대효과를 말씀해주십시오.**

경북에 설치되는 4개 보(상주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중에서 구미시를 관통하는 구미보는 구미시의 젖줄이자 문화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9월 초 현재 구미보의 공정률은 65퍼센트로 내년 말에 완공되면 40만 구미시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5억3천5백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확보해 산업용수와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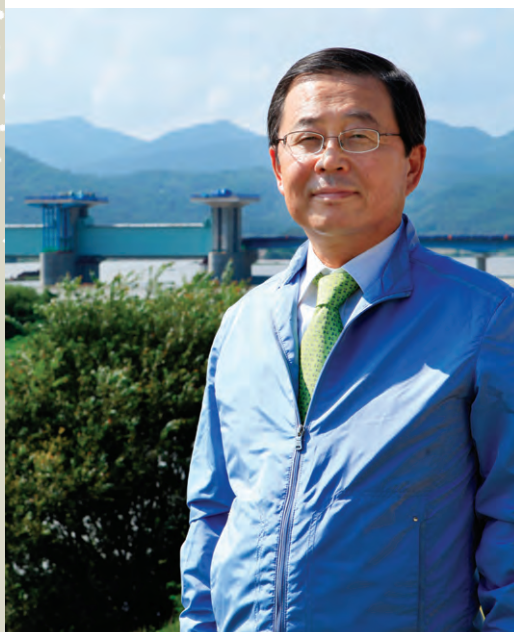
또한 구미보는 3천만 킬로와트 용량의 소수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춤으로써 청정에너지원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는 용과 낙동강을 지키는 거북이의 모습을 형상화한 구미보는 그 자체로 구미시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지난봄 전국 최초로 '탄소제로 도시'를 선언한 구미시 발전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구미시를 굽이도는 낙동강 39킬로미터의 물길을 따라 승마레저관광단지, 수상레포츠공원, 강수욕장, 에코트레일, 생태습지공원, 쉼터 등이 조성돼 구미가 강과 시민의 삶, 문화가 어우러지는 녹색 수변도시로 바뀔 것입니다.

더불어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며 대부분의 구미시민들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의견을 듣고 보완할 것을 보완한다면 더욱 성공적인 강살리기 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7월 문을 연 '경상북도 낙동강 녹색체험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구미시는 낙동강살리기 구간 1천3백 리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이곳에 개관한 경상북도 낙동강 녹색체험관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홍보전시장뿐 아니라 녹색성장 학습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관에는 평일 2백~3백명, 주말 6백~7백명이 방문해 3D 입체영상,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낙동강살리기 사업 전후의 모습과 사업 진행 과정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구미시가 국토해양부에 의해 '물 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된 후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내년부터 추진될 구미시의 물 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은 건천화된 구미천과 금오천 등 도심 하천에 낙동강 본류의 풍부한 물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국가하천과 도심 하천 순환시설 연결, 친수공간과 실개천 조성, 하천 및 복개천 복원, 인접도로 개설 등을 통해 도심 하천에 연중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게 하고, 친환경 수변공간을 조성해 도심의 새로운 문화명소가 탄생할 것입니다. G 글 · 최은숙 기자

## 낙동강 하류 현장

# "그곳에서 옛 가야의 모습이 재현된다"

**낙동강 하굿둑에서 76킬로미터 상류 지점. 낙동강에 세워질 8개 보 중 가장 남쪽에 들어설 함안보 공사가 한창이다. 유난히 저지대가 많고 강 하류라 수질오염이 심한 곳이다. 게다가 수시로 태풍과 가뭄이 찾아드는, 그야말로 악조건은 모두 갖췄다. 때문에 공사에 투입되는 정성과 노력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9월 6일 오전 경남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에 자리한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살리기 경남 1지구건설단 사무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1지구건설단은 낙동강 길곡, 계성, 함안지구 사업 공사 주관 부서다.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경남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20여 일간 함안보(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함안보로 표기하지만 보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에겐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확한 보 이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별인 고공시위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후유증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아니었다.

1지구건설단 직원들은 그 시각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 '말로'의 진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들로서는 자칫 태풍으로 공사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낙동강의 '어둠'이 걷히고 있다.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차원에서 콘크리트 대신 거적떼가 깔린 낙동강 하남지구(창원 대산~밀양 하남~초동).

구조물이나 준설 구간에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당연했다.

사무실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보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태풍 대비에 한창이었다. 장비, 자재 등은 물론 함안보 공사를 위해 설치된 가물막이 등 각종 구조물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사업 공정은 총 13.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현재 40퍼센트가량 진행됐다.

이 중 사업의 핵심인 함안보는 2개 고정보 중 한 개만이 절반 정도 모습을 드러낸 상태다. 반대편 고정보 건설을 위해 가물막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보 중앙 쪽 3련 가동보를 지탱하는 주변 골격공사도 상당한 진척을 나타냈다.

창녕군과 강 건너편 함안군을 잇는 길이 5백49.3미터(가동보 1백44미터, 고정보 4백5.3미터)의 다기능 보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가동보 수문은 상황마다 유량과 수위 조절이 용이한 '라이징섹터게이트' 방식으로 건설된다.

관리 수위는 보 건설로 인근 저지대 침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7.5미터에서 5미터로 낮췄다. 이에 따라 보 높이도 13.2미터에서 10.7미터로 하향 조정됐다.

1지구건설단 이상록 차장은 "관리 수위를 2.5미터 낮추면서 보 주변 0.7제곱킬로미터 정도만이 지하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5미터 이하 지역은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지하수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1월 건설단 차원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고, 2월에도 건설단장이 직접 창녕군민들과 만났다"며 "현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안보 공사 현장 주변에는 1, 2차에 걸쳐 오탁방지막이 설치돼 있다. 특히 보 공사 인접 구간은 오탁방지막을 상·하류 방향에서 2중으로 '오버랩'시켜 오염 원인 물질이 원천적으로 강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 방송에서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가 내릴 당시 함안보 인근에 발생한 탁수의 원인이 준설토가 쓸려내려간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 차장은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탁수 수준이지 오탁방지막 등 관리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 가동보, 유량·수위 조절 용이한 '라이징섹터게이트' 방식

오히려 탁도 관리는 4대강 16개 보 중 가장 탁월하다는 게 건설단의 설명이다. 김기호 건설단장은 "유난히 함안보 준설과 관련해서는 강의 탁도와 퇴적토 오염 여부가 많이 이슈화됐는데 오히려 차별화된 탁도 관리 기술을 통해 물을 내보내게 돼 수질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탁도 관리의 핵심이 모래 제방에 있다고 했다.

"퍼올린 준설토에서 나온 침출수를 모래 제방에 통과시켜 여과해 물을 다시 내보냅니다."

공사 후 관리뿐 아니라 사전에 오염지역의 탁도 분석도 끝냈다. 건설단은 준설 전에 보 인근 지역 중 퇴적토 등으로 오염될 만한 곳을 시추해 탁도 및 수질 분석을 끝내고 전부 정상적인 토양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날 가물막이로 둘러싸인 보 공사 현장은 하천수로 채워져 있었다. 언뜻 보기엔 침수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의도적인 '물 채움'이다.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 가물막이 안팎의 수압을 동일하

**경남 1지구건설단 김기호 단장**

## "낙동강 새롭게 창조되는 건 당연"

"격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낙동강 길곡, 계성, 함안지구 사업을 총지휘하고 있는 김기호 단장의 어조엔 강한 자신감이 엿보였다.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 등이 아직 거세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자연히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신념도 더욱 확고해졌다.

"홍수 피해가 잦아 고통이고 물이 없어 고통인 지역이 낙동강 유역입니다. 총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곳이죠. 갈수기만 되면 둔치의 퇴비와 비료가 하염없이 하류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킵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면 자연이 만신창이가 돼요.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새롭게 재창조돼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어려운 공사 여건에도 묵묵히 일에 전념하는 건설단 직원들에게 김 단장은 고마움을 표한다. 그러면서도 직책상 다시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밖에 없다.

"직원들과 약속한 운영 방침이 끝까지 지켜졌으면 합니다. 영어로 'PESQ'인데 공정(Process), 환경(Environment), 안전(Safety), 최고의 품질(Quality)이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팀워크와 원활한 소통 속에서 차질 없이 이행됐으면 합니다."

함안보 공사 현장. 고정보와 가동보 일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현장을 찾아 사업 개요를 확인하고 있다.

게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수량이 급격히 불어나 가물막이 내로 물이 갑자기 흘러들어 구조물 등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완충 환경을 만들어 놓는 작업이다. 이 사업구간의 자랑인 '충수 공법'이다. 일종의 '워터 쿠션'인 셈이다.

### "침출수 모래 제방 여과로 수질 좋아졌다"

이처럼 세심한 관리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이곳엔 보 건설에 이어 길곡, 함안1지구 등 3개 지구 3.5제곱킬로미터 면적에 생태하천 등도 조성된다. 건설단은 공정 계획상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설단은 이번 가을 2개 지구 정도를 선도지구로 미리 지정할 예정이다.

함안군 쪽에 인접한 보 부분엔 아이스하버식 어도와 5천 킬로와트 규모의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 옛 가야의 역사를 반영해 명명된 공도교 '아라빛교'와 수문 사이 공간은 갤러리나 전시 아트리움으로 활용된다.

전체적으로 지역 역사와 랜드마크를 잘 활용해 명품 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빗줄기가 내린 낙동강 길곡, 계성, 함안지구. 비에 가려 공사 현장 전체가 시야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엔 내년 12월 탄생할 옛 가야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G

글 · 유재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길곡, 계성, 함안지구 김근삼 현장소장**

## "낙동강의 미래, 태평성대가 올 겁니다"

"태평성대가 올 겁니다."

낙동강 길곡, 계성, 함안지구 현장을 지휘해온 김근삼 현장소장은 낙동강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다. 공사 진척 상황을 묻자 그는 공사 외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적잖았다는 이야기부터 꺼냈다.

"공사 구간이 강 하류에 있다 보니 기반암 찾기부터 힘들었죠. 다른 지역은 조금만 굴착하면 기반암이 나오는데 여기는 30~40미터 내려가야 찾을 수 있었어요. 당연히 가물막이 공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고…."

하지만 다양한 과학적 공법을 적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만족해했다.

"충수 공법과 세밀한 수질 및 탁도 관리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어요. 과거엔 이 부근 약 2백 동의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농약 등으로 부영양화, 오탁이 너무나 심했죠. '제 명대로 못 사는' 강이었습니다. 요즘은 비가 와서 공사 현장으로 물이 넘쳐 펌프로 물을 빼내다 보면 물고기들이 넘쳐납니다. 이들을 방생할 때 기분이 정말 좋죠. 현재 사업 현장은 75만 시간 동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충식 창녕군수

# "낙동강 살아나면 창녕군, 문화관광지로 우뚝"

김충식(60) 창녕군수의 소신은 굳건했다. 육십 평생 낙동강을 보고 자란 그에게 지금의 낙동강은 극진히 보살펴야 할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자정능력에 한계를 드러낸 낙동강살리기를 두고 엇갈리는 찬반양론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당연히 없다. 낙동강으로 숨을 쉬는 지역의 단체장으로서 강살리기 전도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소명이다.

**창녕군을 통과하는 낙동강의 상태가 그간 심각했다고 들었습니다.**

창녕군 남지읍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낙동강을 매일 접했습니다. 낙동강에 멱을 감으러 가면 중간 수심이 3, 4미터에 육박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발바닥에 조개도 밟히고, 낙동강 물로 밥도 해먹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낙동강은 토사로 뒤덮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낙동강 구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모터보트를 타고 낙동강을 지나는데, 스크루가 강 토사에 걸려 '가다 서다'를 반복한 적이 있어요. 수심이 40~50센티미터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가뭄은 물론 홍수 대처 또한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변해버린 게 낙동강이었습니다.

**창녕군 길곡면에 건설 중인 함안보가 가뭄 및 홍수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 준공 자체도 엄청난 일이지만 낙동강살리기 사업 전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낙동강은 경남 지역에서는 1백6킬로미터가 통과하는데, 그 중 창녕군이 60킬로미터를 차지합니다. 그런 만큼 사업 자체가 우리 군의 경제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환경 조성, 국내 최대 습지인 창녕 우포늪, 부곡온천 등과 연계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창녕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농민들입니다. 가뭄 때의 피해가 특히 컸을 텐데요.**

지난해 모내기 하는 농민들이 애를 태웠습니다. 당시엔 소류지까지 다 말라버렸죠. 어쩔 수 없이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 강도 중앙에나 물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창녕의 관광산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텐데요.**

창녕은 제2의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의 생명력이 점차 살아

조영철 기자

나고 생태환경이 조성되면 문화관광지로서 그 주목도가 더욱 높아질 지역입니다. 창녕 특유의 문화 특성을 살리는 한편 강을 활용한 다양한 레저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지 지역엔 리버크루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물 박물관 등 관광랜드화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 책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창녕군과 연관되는 낙동강 본포, 북면, 초동지구와 길곡, 계성, 함안지구는 환경단체의 반대가 만만찮은 곳입니다.**

제 소신대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위해 군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지만 이곳 주민 모두의 뜻이 맞아야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적, 정책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경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기능 회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G

글 · 유재영 기자

금강 생태하천 조성 세종지구

# "습지·하중도 보존 총력 반대 목소리도 잠잠…"

금강살리기 선도사업 구간인 세종지구의 목표는 생태하천 조성이다. 기존 습지와 하중도를 살리면서 금남보 건설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고 인간과 자연이 가까워질 수 있는 수변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세종지구에 있는 자연습지는 그대로 보존된다.

금강살리기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세종지구. 이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세종시 중앙을 관통하는 구간으로, 금강살리기 사업의 핵심지역이다. 지난 8월 25일 4대강살리기 사업의 목적 중 하나인 '생태계 복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세종지구는 금남보를 짓고 있는 구역과 미호천과 금강 합강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공원을 조성 중인 구역으로 나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양쪽 모두 기존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더욱 다양한 수생 동식물이 회귀할 수 있도록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장환 감리단장은 "세종지구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테마로 기존에 있던 습지나 하중도(강 가운데에 형성된 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의 목적인 보(洑) 건설과 준설, 수변공간 조성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공정률은 50퍼센트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금남보에 설치될 어도도 친환경적으로 설계

우선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현장사무소 바로 앞에 건설되고 있는 금남보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지역에 설치되는 보들과 달리 금남보는 공도교가 없고 높이도 낮았다.

금남보는 금강에 짓고 있는 3개의 보뿐만 아니라 4대강의 16개 보 중에서도 가장 낮은 보다. 양쪽 제방 사이 길이가 3백48미터에 이르는 금남보는 수문이 달린 가동보 구간이 총 2백23미터, 가동보 사이사이에 짓는 고정보 구간은 총 1백25미터에 이른다.

박 단장은 "금남보 위쪽은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지역으로 크고 작은 하중도에 갯버들, 갈대 등 친수식물과 텃새인 백로, 오리 등이 살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지"라며 "이곳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의 높이를 4대강 16개 보 중 가장 낮은 4미터로 설계하고 관리수위를 1.5미터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남보에 설치될 어도(魚道·물고기가 보를 넘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길)도 친환경적으로 설계돼 있었다. 대개 보에 설치되는 어도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계단형이다. 그러나 금남보의 어도는 자연수로형으로 보 한쪽을 경사가 완만한 샛강처럼 만들어 물고기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금강의 3개 보

충청북도
충청남도
금강
금강보
금남보
부여보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금강
전라북도

금남보 위쪽으로 지류인 삼성천과 만나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구간에는 오래전에 형성돼 낚시터나 조류 서식지로 이용되던 하중도가 있다. 그동안 이곳에는 키 작은 잡풀만 있었으나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버드나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생식물들이 심어졌다.

금남보를 짓고 있는 토목사업본부 송인석 차장은 "이 나무들은 조경용으로 심은 게 아니다"며 "금강 둔치 정비사업을 하면서 뽑아낸 나무들을 이곳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풀 한 포기 버리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현장 주변을 살펴보니 제방에서 강으로 연결되는 경사면 전체에 녹색으로 된 식생매트를 씌어 놓았다. 일부 경사면에는 매트 위로 풀이 크게는 무릎 위까지 자란 것이 눈에 띄었다.

송 차장은 "식생매트는 생분해되는 고구마 전분으로 제작된 것으로 매트 아래 잔디나 갈대, 억새풀 등이 자라나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도운 후 자연 분해된다"며 "사실상 콘크리트로 시공되는 곳은 보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 "식생매트는 생분해성인 고구마 전분으로 제작"

제방 경사면도 기존의 1 대 2 비율(가로 2미터×세로 1미터 사각형의 대각선 경사도)에서 최고 1 대 10 비율까지 완만하게 만들었다. 급경사일 때는 사람들이 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이 낮았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함으로써 접근성도 높이고 각종 레저활동이나 물놀이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 차장은 현재 삼성천 제방에 설치돼 있는 콘크리트 블록을 가리키며 "금강 제방이 대부분 저런 호안블록이나 나일론 매트로 덮여 있었다"며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적 공법이 많이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강지점 그리고 미호천이 연기천과 만나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상류쪽 구역도 자연습지를 그대로 살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 하수처리장에서 연기천을 거쳐 미호천

금강 세종지구에 설치된 금남보는 다른 보들과 달리 공도교가 없으며 가동보의 수문은 아래로 기울어지는 전도식으로 돼 있다. 또 보 상류의 습지와 하중도가 침수되지 않도록 보 높이도 낮게 시공됐다.

세종지구 토목사업본부 송인석 차장은 세종지구의 제방을 최대 1 대 10의 경사면으로 완만하게 조성해 강변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으로 흘러드는 2차 처리수를 정화하는 인공습지와 봄내공원, 합강공원, 한나래공원, 봉기리 한글공원 등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원들이 추가 조성된다.

합강지점에서 금강 하류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곧 만나게 되는 연기군 남면 양화리 쪽의 자연습지는 많을 때는 1백여 마리의 백로가 관찰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만 해도 10여 마리 정도에 불과했던 백로가 올봄 안전하게 부화되는 알이 급증하면서 개체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제 막 날갯짓을 배운 새끼 들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인 들오리 가족들도 눈에 띈다.

금강살리기 사업 초기에 이곳을 보존해야 한다며 환경단체 등이 금강살리기 사업에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고 자연습지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반대여론은 잠잠해졌다.

생태계복원 사업을 맡고 있는 토목사업본부 권오성 대리는 "자연습지를 보전하는 동시에 금강 본류와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지역에는 공원이 조성된다"며 "금강살리기 사업이 완료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면 이곳은 도시민들의 자연생태 학습장이자 수생 동식물들의 안전한 서식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방 경사면에 씌어 놓은 식생매트는 생분해되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것으로 매트 아래 잔디나 갈대, 억새 등이 자라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도운 후 자연 분해된다. 콘크리트로 시공되는 곳은 보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자연습지 보존하고 합강지역엔 공원 조성"

금강 세종지구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940년대에 제작된 지적도를 참고해 당시의 강변 모습과 강폭, 하중도, 습지 등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금강 상류에 용담댐과 대청댐이 들어서면서 수량이 급속히 줄고 미호천 등에서 오염된 물이 유입돼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세종지구 송인석 차장은 "이제 금남보가 건설되고 강폭이 넓어지면 수량이 예전만큼 풍부해질 것이고, 자연습지와 하중도 등 하천 생태계도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금강의 대표적인 어종이며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와 미호종개도 안전하게 산란을 하며 서식할 수 있고 백로도 먹잇감이 풍부해진 이곳을 더 많이 찾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G

글과 사진 · 공감코리아(korea.kr) 제공

이용우 부여군수

# "금강살리기는 백제 古都 부여가 부흥하는 계기"

충청사회조사연구소가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금강 유역인 충남 공주, 논산, 부여, 서천, 연기, 청양 지역 주민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금강 유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금강살리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의 경우 59.7퍼센트가 금강살리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용우(49) 부여군수는 "금강살리기 사업이 장마철이면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 예방뿐 아니라 백마강 벚길 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본다"며 "부여군민들은 금강살리기 사업이 이·치수에 그치지 않고 강변에 흩어져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해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물길을 여는 사업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부여군에 어떤 도움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금강살리기 사업은 백제 고도(古都) 부여가 부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군은 금강살리기 사업의 테마를 '문화가 흐르는 금강'으로 설정하고 백제 역사·문화유산과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의 주무대인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물론 한옥 숙박촌, 고도보존사업, 역사도시 조성사업, 사비왕궁원과 함께 기존 관광시설인 백제왕릉원, 부소산성, 서동공원, 국립부여박물관 등과 연계해 '세계적인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여에는 부여보가 건설되고 있는데, 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보 건설은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하고 용수 확보 등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에서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에 이르는 총연장 6백20미터(가동보 1백20미터, 고정보 5백미터)인 부여보는 현재 약 42.5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건설되고 있어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부여보는 특히 말을 타고 백마강을 바라보는 계백장군을 형상화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여보를 통해 충분한 수량과 친수공간이 확보되면 부여~공주~세종시를 연결하는 황포돛배 운항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 부여군민을 대표해 중앙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금강 하굿둑 때문에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퇴적층이 쌓이면서 역류현상이 일어나 부여군의 배수펌프장은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지역민들은 금강 하굿둑 해수 유통을 금강살리기 사업의 핵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의 역사, 문화, 지리, 환경, 생태 등을 집대성하고 이를 통해 금강의 역사성과 시대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금강역사문화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강이 부여군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금강 본류뿐 아니라 지류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금강살리기 사업을 금강 하구의 수질 개선, 금강역사문화관 건립, 지류 정비사업, 문화관광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하면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G

글 · 이혜련 기자

## 남도민의 희망, 영산강살리기 현장

# "우리의 젖줄 영산강, 반드시 살아나야 혀"

영산강은 남도민의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일순간 오염돼버린 뒤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했다.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우려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은 "영산강살리기야말로 강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말라비틀어진 강바닥에서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 온당께. 서울 사람들은 암것도 모르고 물고기가 숨 쉬는 게 아니냐고 묻잖여. 귀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냥 웃어버렸제. 으째 강이 썩을 때까지 요로코롬 냅뒀는지 몰러. 냄새도 얼마나 고약한지 강 근처에 가기도 싫당께."

9월 6일 영산강살리기 다시지구 현장에서 만난 유제관(62) 씨는 "영산강의 변해버린 모습이 한스럽다"고 말을 건넸다.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하동마을에 사는 그의 본래 직업은 어부. 젊은 시절 영산포와 죽산포에서 배를 운항하며 고기를 잡았다. 그때만 해도 장어, 황실이, 복어 등 20종이 넘는 물고기가 줄줄이 올라왔다. 하지만 1981년 영산강 하굿둑이 생기면서 영산강은 변해갔다. 물고기들이 사라졌고 급기야 메말라 버린 강바닥에서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다.

"갈수기 때 강바닥만 보면 시꺼매. 얼마나 시꺼먼지 드러버서 못 보겠어라. 강 근처에 살아봐야 이 고통을 안당께. 나도 어쩌겄어. 고기 못 잡응께 농사일이라도 해야 했재."

유 씨는 논을 빌려 보리를 심었다. 맥주보리를 키우는 게 몇 푼이라도 남는 장사였기 때문이다.

영산강살리기 선도사업으로 알려진 함평2지구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인근의 미니 가동보 모습.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홍수조절용 저류지가 들어설 함평2지구는 올해 말 완공돼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하지만 그는 영산강에서 어부로 지내던 행복한 때를 잊지 못했다.

그런 그에게 제2의 인생이 펼쳐졌다. 지난해 11월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서다. 마을 근처에 영산강살리기 다시지구 사업이 조성됐다. 다시지구는 영산강살리기 사업 중 큰 비중을 담당하는 죽산보가 들어서는 곳이다. 유 씨는 한때 배를 몰던 실력 덕분에 이곳에서 일하게 됐다. 수질오염을 막는 오탁방지막과 오일펜스 등을 설치하고 현장 사람들과 공사하면서 주의해야 할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그는 "강이 되살아나면 다시 배를 몰고 어부로 살고 싶다"며 "그 생각만 하면 영산강을 위해 하는 일들이 힘들지 않고 즐겁다"고 말했다.

죽산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주민은 유 씨만이 아니다. 그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죽지마을에 사는 임도순(62) 씨도 농지 보상 문제 등 영산강살리기 사업 공구 근처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챙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임 씨는 "우리 마을에 사는 50여 명의 주민들도 영산강살리기에 대찬성"이라며 "농사꾼으로 친환경 쌀을 재배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 물의 소중함이다. 영산강 물만 되살아난다면 그런 걱정을 덜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 "영산강 되살아나면 물 걱정 덜고 농사일 전념할 텐데…"

알려진 대로 현재 영산강의 수질은 4대강 중 가장 나쁘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에 따른 연평균 수질이 3급수로, 특히 갈수기 때 중·하류 수질은 4, 5급수다. 식수는커녕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가 우려될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따라서 영산강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준설을 통해 물그릇을 키우는 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1백38킬로미터의 영산강 본류와 지천을 대상으로 10개 공구에서 시행된다. 그중 다시지구 죽산보와 서창지구 승촌보가 완공되면 1억1천만 세제곱미터의 용수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 다시지구 죽산보의 공정률은 45.4퍼센트.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도 제법 보의 모습이 뚜렷했다.

죽산보 공사를 맡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 김선규 감리단장은 "죽산보에 설치되는 가동보는 상황에 따라 수문을 열고 닫아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에 물이 부족할 일이 없다. 자연스레 수질오염이 개선되고 홍수나 가뭄 대비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강물 안에 차례대로 설치된 4개의 가동보를 살펴보다 강가에 인접한 2개의 기둥이 눈에 띄었다. 다른 보에선 찾아볼 수 없는 죽산보만의 특징인 통선문이었다. 폭 12미터의 통선문은 현재 운항 중인 황포돛배 뱃길을 연결한다.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임재식 사무관은 "1백 톤급 황포돛배가 목포에서부터 나주 죽산보를 거쳐 영산포까지 자유롭게 다니며 옛 영산포의 부활을 재현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침수 문제다. 영산강 주변

토양이 점토질이라 비가 내리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지반이 약해 중장비 등이 가라앉을 위험이 있어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김선규 감리단장은 "영산강 하류지역이다 보니 지반이 약해 공사장 도로 부분에 자갈을 덮었다"며 "그동안 죽산보 공사를 진행하면서 침수 피해나 습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침수 피해지역을 5개 지역으로 나눠 점검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엔 자동수위계를 통해 배수 펌프장을 가동하는 대책을 마련해놓았다"고 전했다.

### "지역민의 숙원 영산강살리기, 제대로 잘해냈으면…"

죽산보에서 승촌보로 이동하면서 영산포에 들렀다. 영산포는 1977년 영산강이 수운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 번성했던 영산강의 최대 포구였다. 지금도 영산포에는 유일한 내륙 등대와 '홍어의 거리'가 조성돼 있어 당시 번영을 짐작할 수 있다.

2대째 40년간 홍어 요리를 내놓고 있는 안국현(55) 씨는 "영산강 뱃길이 끊기면서 영산포는 쇠락했지만 앞으로 강물을 살려내 이곳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영산포의 명물 홍어 맛을 전하며 남도문화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서창지구 승촌보 현장에 인접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봉호마을 주민들도 영산강살리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영산강이 바로 내다보이는 평상에서 만난 이들은 "영산강살리기는 지역민의 숙원"이라며 "기왕 시작한 거 제대로 잘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교롭게도 승촌보 공사 현장 근처에서 종교단체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을 바라본 주민 이용복(62)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며칠만 살아보소. 강물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비가 조금만 내려도 침수 피해 입을까 노심초사할 거랑께."

이 씨는 "물 조절하는 능력을 갖춘 보가 생기고 주변에 친수 생태환경까지 조성돼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니 기대된다"고 말을 이었다.

서창지구를 담당하는 김재현 감리단장은 "현재 승촌보 공정률은 54.2퍼센트로 하천환경을 정비하고 구하도를 복원하는 하반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강바닥의 흙을 파내 물그릇을 넓히는 준설작업을 통해 농경지를 리모델링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주민과 공사 현장 관계자의 바람처럼 영산강이 회복되는 일은 이제 시간을 두고 함께 노력하는 것에 달렸다. 2006년 생태하천 복원지역으로 선정돼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인근에 자리한 함평2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하천구역 농경지와 구하도를 복원한 함평2지구는 미니 가동보까지 가동해 생명이 살아나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났다.

함평천의 나머지 구간은 영산강살리기 직접 연계사업으로 발주돼 9공구와 10공구에서 함평2지구를 모델로 생태학습장과 홍수조절용 저류지 공사가 한창이다.

함평2지구를 담당하는 정화원 감리부장은 "9만 평 규모의 저류지가 76만 톤의 물을 조절하고 하천 생태탐방로, 파크골프장 등 주민 문화·체육시설까지 갖춰 이제 함평이 '나비축제' '국화축제'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태하천인 함평천으로 더 알려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에 위치한 서창지구 승촌보 현장.
수변 생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 틈틈이 수변 생태를 가꾸고 있으며
앞으로 극락친수공원 등 지역주민이 맑은 물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친수 생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성훈 나주시장

# "영산강 살리면 지긋지긋한 홍수 막을 수 있다"

임성훈(51) 나주시장은 영산강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아려온다. 나주시 다시면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에게 영산강은 오랜 친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청년이 되어 객지로 떠난 후 영산강은 변하기 시작했다.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조차 꺼려지는 영산강은 지역주민들도 반기지 않는 강이 돼버렸다.

임 시장은 영산강과 나주시민의 끊긴 연을 잇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최근 나주시장으로 취임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도 영산강살리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었다.

**영산강살리기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릴 적 영산강에서 멱을 감고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게 불과 30~4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영산강 상류에 4개 댐을 건설하고 하굿둑을 쌓으면서 영산강의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 영산강의 수질은 5급수로 측정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영산강살리기 사업 중 나주시 비율이 80퍼센트에 이릅니다. 현재 나주에서 진행 중인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규모와 진척 정도가 궁금합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4대강살리기 사업과 별도로 이미 2004년부터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과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천 시 되풀이되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수질 개선을 통해 강의 기본적인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영산강 하굿둑에서 담양댐까지 총 1백28킬로미터의 구간에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수질 개선사업, 생태하천 조성, 제방 보강, 보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중 1조9천억원 규모 14개 사업을 맡고 있으며 전체 공정의 25퍼센트가 진행 중입니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침수 피해입니다. 나주시는 영산강 본류와 황룡강, 지석천의 합류로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보가 설치되는 동안 수위가 상승해 적은 비에도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와 철저히 협의해 침수대책을 마련했고 이번 집중호우 때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영철 기자

**영산강이 살아나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무엇보다 수질 개선과 상습적인 홍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수질이 개선되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주시민의 식수원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바탕으로 한 나주시의 구체적인 발전계획들이 궁금합니다.**

삼한시대 마한의 중심지였고 지금까지 2천 년 역사를 아우르는 곳이 나주입니다. 영산강이 살아난다면 황포돛배를 운항해 역사와 강을 하나로 연계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영산강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4대강살리기 사업, 첫 결실 얻다** 9월 10일 장관을 드러낸 낙동강 화명지구 전경. 수생식물원, 조망데크, 나루터데크, 레포츠시설 등이 조성돼 있다.

### "별천지가 따로 없네. 오늘부터 우리 놀이터는 여기"

화명지구 내에 조성된 수생데크 주변을 백로 두 마리가 유유히 거닐고 있다. 화명지구를 찾는 철새들을 위해 지구 내에 조류보호시설도 설치했다.

동아DB

### 하늘과 땅과 바람도 지나칠 수 없는 곳. 수생식물들의 백화점

갈풀, 물옥잠, 노랑머리연꽃 등의 '자연 확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생식물원도 선을 보였다. 흐르는 물에선 팔뚝만한 붕어가 힘차게 용솟음친다.

동아DB

동아DB

4대강 사업 첫 결실… 낙동강 화명지구 준공

# 오염된 땅, '자연 낙원'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의 탄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도시 속의 오염된 강변 땅이 자연 낙원으로 변했다. 시원스럽게 뻗은 낙동강을 벗 삼아 녹색의 수풀과 수생식물들이 근사한 낙조와 어울린다. 낙동강살리기 제4공구 부산 화명지구(부산 사상구 삼락동~북구 덕천동)가 2년 2개월 동안의 하천 환경정비사업 공사 끝에 9월 10일 그 장관을 드러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첫 결실이다. 새로운 자연이 펼쳐진 1.41제곱킬로미터 공간은 예전의 모습을 기억해낼 수 없을 정도로 1백80도 변신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처럼 자연과 어우러진 화명지구는 이제 시민들을 초대한다. 시민들은 지구 내에 조성된 수생식물원데크, 나루터데크 등 자연의 품에서 삶의 희망을 노래한다. 자연에 흠뻑 취한 뒤 2개의 야구장과 농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풋살장 등의 레포츠시설에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을 만끽한다. 앞으로 화명지구엔 갯버들 10리길, 연꽃 수련단지, 목재데크, 수변광장, 황톳길 탐방로 등 2단계 수변 생태경관 조성사업도 연이어 추진된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생태공간. 4대강 '녹색 명품' 1호, 화명지구로 찾아가 보자. G

글 · 유재영 기자

**"제 고향에 낙원이 생겼다는데 만사 제치고 와야죠"**

낙동강 화명지구 사업 준공식에 초대된 부산 출신 가수 설운도가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미래를 화명지구에서 확인한다**

9월 10일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지구 둔치에서 준공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준공식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부산광역시장을 비롯,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 물길 따라 문화가 흐른다

## 수변관광개발 국제학술대회… 대학생 참신한 아이디어 봇물

**수변관광개발은 강변에 문화의 옷을 입히는 사업이다.
생태를 살리는 동시에 독특한 이야기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

"강천보 주변에 신재생에너지를 즐기는 테마공원을 만들자." "강, 배, 녹차를 문화 코드로 섬진강 지역의 시공간을 재창조하자." "치유할 유(癒), 흐를 유(流), 사람 유(YOU), 놀 유(遊), 4대 유를 테마로 영산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9월 9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는 수변관광개발에 대한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대학(원) 관광학과 수업과 연계해 상품화가 가능한 강변관광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의 공식 명칭은 수변관광개발 국제학술대회. 전국 13개 대학 67개 연구팀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심사를 거쳐 선발된 15개 팀이 참가했다.

부산대 송송이 학생팀은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 여가공간과 보에 건설되는 소수력발전소에 착안해 기존 레포츠단지나 생태공원과 차별화되고 저탄소 녹색관광도 만족시키는 테마공원을 제안했다.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휴식공간으로 관광객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관은 1번부터 11번까지 모두 돌아보아야 나갈 수 있는 미로 형식으로 재미를 주며, 태양광을 이용한 보트를 타고 보를 돌아보는 탐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발표자인 부산대 경영학과 송송이 씨는 '신재생에너지 강변 테마공원'이 에너지 효율 달성 및 탄소 배출 감축으로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배우고 체험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부산대 학생팀, 저탄소 녹색관광 테마공원 제안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배성민 학생팀은 강, 배, 녹차를 핵심 문화요소로 섬진강의 시공간을 재창조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섬진강뿐 아니라 다른 강에서도 수변관광개발을 할 때 핵심 문화요소를 찾아내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창조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울산시청

지난 5월 개장한 울산 태화강 대공원은 자연 친화형 수변생태공원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경희대 이현승 학생팀은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영산강 유역을 유람하며 한방요법으로 일상에 찌든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영산강을 따라 들어선 전통마을에서 고향을 느끼며, 은퇴자들에게 한방치유를 곁들인 휴식을 제공하고, 흥미로운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가람마실(강변 마을)을 제안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의료관광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변관광과 한방치료를 결합한 새로운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주목받았다.

이날 대회는 특히 기존 관광개발 정책 공모전을 탈피해 국내외 관광 관련 학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국제 규모의 학술대회로 치러져 국내 수변관광 활성화와 지역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 "수변관광개발 국제학술대회 통해 學·官의 소통기반 마련"

중국 사회과학원 관광조사연구소 장광루이 소장이 참석해 양쯔강, 황허강, 베이징~항저우 대운하 등 중국의 수변관광개발 사례를 발표했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심원섭 박사는 문화공간으로서 강의 역할과 활용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대회에서 실효성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는 수변관광개발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관광학회 한범수 회장은 "민간 학술단체가 주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를 개발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학·관의 소통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국내 수변관광개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활발히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함평

전남 함평군이 조성한 함평천 수변공원은 나비축제와 함께 함평군의 랜드마크가 됐다.

**중국 사회과학원 관광조사연구소 장광루이 소장**

## "韓-中, 강변관광개발 교류 있어야"

조영철 기자

수변관광개발 국제학술대회에서 '중국 강변관광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발표한 장광루이(66) 중국 사회과학원 관광조사연구소장은 중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 전문가다. 수많은 중국 관광개발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정책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의 관광 전문가로서 신장개발전략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스리랑카와 마카오 정부의 관광정책을 컨설팅하기도 했다.

장 소장은 "한강 유람선을 타고 바라보는 서울은 정말 아름답다"며 "중국의 강변관광개발 사례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관광개발에 대해 교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은 5백 개 이상의 강을 보유한 큰 나라다. 1970년대 말 개혁과 개방 이후 수많은 강변관광개발이 시행됐다. 장 소장은 이 가운데 양쯔강, 황허강, 리지앙강의 관광개발을 소개했다.

양쯔강은 유람선과 댐 관광이 이뤄졌다. 하지만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유람선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고, 가격경쟁이 과열돼 관광지로서 지역의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댐 관광을 통한 이익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방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인들에게 어머니의 강으로 여겨지는 황허강 관광개발은 이벤트를 통해 진행됐다. 홍콩 인기스타 케슈우리앙이 1997년 7월 4일 황허강 후커우폭포에 설치한 와이어 위로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는 이벤트를 연출하면서 일약 관광지로 부상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개발과 보존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장 소장은 "중국도 강변개발 중에 발생하는 환경파괴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환경파괴를 막는 동시에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지앙강은 자연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낸 사례다. 계림에서 발원한 리지앙강은 중국 최고의 강변절경을 자랑한다. 하지만 리지앙강을 관광 명소로 만든 것은 장이머우(張藝謨) 감독의 영화를 오페라 공연으로 만든 〈인상 제3조(Impression, Sister LIU III)〉다. 이 창조적인 공연은 아름다운 자연과 우수한 지방문화, 기술이 결합된 최고의 강변관광개발 사례로 자리 잡았다.

장 소장은 "혁신과 창조는 강변관광의 경쟁력을 높인다"며 "사려 깊게 잘 이뤄진 강변관광개발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엔진 소리에 매력을 느껴 엔지니어가 됐다는 정태준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차장이 디젤동차의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 “추석 귀성, 안전장치 갖춘 열차 이용하세요”

## 2010 명장으로 선정된 정태준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차장

**32년간 한 우물을 파며 철도 동력차 기관 정비 부문에서 명장의 반열에 오른 사람. 철도 기능인으로 살아서 행복하다는 사람. 꾸준히 한길을 걸어 국내 최고 기능인 자리에 오른, 지천명을 막 넘긴 한 남자의 인생 속으로 걸어가 보자.**

“수많은 부품으로 이뤄져 움직이는 철도차량의 기관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엔진은 세심하게 공을 들일수록 힘차게 움직이죠. 그렇게 철도 동력차의 기관 정비를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의 법칙을 배웠는지도 모르겠네요.”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의 정태준(51) 디젤차량팀 차장이 32년 동안 철도 동력차 기관 정비에 인생을 바치며 배운 깨달음이다. 그 세월 동안 엔진 소리에 매력을 느껴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던 스무 살 까까머리 청년은 어느새 지천명을 넘어섰다. 그는 국내 최고 기능인으로 인정받으면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2010년 ‘대한민국 명장’ 21인 중 철도 동력차 기관 정비 부문 명장이 됐다.

정 차장은 철도 동력차 기관 정비 분야의 살아 있는 역사다. 1978년 철도청 서울공작창(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의 전신)에 보조공원으로 입사해 철도차량의 기관 정비를 맡게 되면서 공원, 정비원, 검수원, 검수장을 거쳐 기관 정비를 총괄하는 현장 최고관리자인 차량관리차장 자리에 올랐다.

그동안 그는 일반 열차를 비롯해 무궁화형 디젤동차, 새마을동차, 도시통근형 디젤동차 등의 기관 정비를 전담하면서 철도차량 동력기관 정비의 장인으로서 기능을 쌓아왔다.

특히 그는 1993년 싱가포르 MTU기관 정비교육센터에 파견돼 교관요원 교육을 받으면서 선진 정비 기술에 자극받아 철도 동력차 기관 정비 기술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2001년엔 엔진을 기중기로 돌려야 했던 수작업 형태를 버튼으로 회전시키는 완전 자동화 개발 작업을 완료했다. 그 덕분에 10일이 걸리던 엔진 작업공정이 8일로 줄어 철도 안전 강화는 물론 시간 및 비용 절약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또 연간 1백31량의 도시통근형 디젤동차와 20량의 무궁화형 디젤동차 기관 정비를 지도 관리하면서 지난 몇 년간 단 한 건의 엔진 고장도 내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새마을동차 기관정비 공정 개선 등을 47건이나 해내기도 했다. 엔진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마을동차 기관정비 절차서 및 차량검수 문답집까지 발간해 기관 정비공정을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 철도 동력차 기관 정비의 살아 있는 역사

그 결과 철도의 안전운행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을 높이 산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의 추천으로 2010년 대한민국 명장 21인 후보에 명단을 올렸고 7백명에 이르는 후보들과의 경선을 거쳐 명장으로 선발됐다. 명장이 되기 전에도 그는 이미 2003년 올해의 철도 차량인에 선정됐고, 2007년엔 품질경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철도 동력차의 모든 기관 장치를 완전 분해해 검수할 수 있는 기능은 정 차장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게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정 차장은 자신에 대해 '엔진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엔진은 소리만 들어도 아픈지 건강한지 알 수 있어요. 엔진이 아플 때는 자식이 아픈 듯 마음이 쓰립니다. 또 고장 난 엔진이 수리 후 부드러워져 기운차게 시동이 걸릴 때의 짜릿함은 철도차량 정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그렇게 철도차량 엔진과 사랑에 빠진 그는 평소에도 늘 철도 동력차 기관 정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모를 하고 설계도면을 그려보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또 어느 정도 완성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분임토의 등을 통해 동료들과 회의를 거쳐 좀 더 나은 엔진 정비를 위해 애쓰고 있다.

그는 철도 동력차 기관 정비인으로 일하면서 보람도 애환도 적지 않게 겪었다. 특히 10여 년 전 겪었던 추석 귀성대란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꼽았다.

"그 시절에는 추석이면 국민의 70퍼센트가 열차를 이용했어요. 정말 전 국민의 고향 가는 길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도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면 며칠씩 야근을 해야 하지만 정말 그 시절에는 한 주 이상 엔진 정비작업으로 퇴근도 못 하고 철야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힘들고 지쳐도 정비를 끝낸 열차들이 승객을 태우고는 새벽을 헤치면서 힘차게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은 어느새 장성해 제몫을 해내는 자식의 모습처럼 뿌듯하기만 했죠."

이번 추석 귀성길도 며칠 동안은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기관 정비 철야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정 차장. 그는 추석을 맞아 철도를 이용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 이용법에 대해 몇 가지를 조언했다.

"태풍 곤파스가 강타한 후 철도는 안전한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철도는 안전합니다. 철도의 경우 10가지 이상의 자동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요. 따라서 만일 사고가 나더라도 절대 일어서지 말고 자리를 지키면서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 생명을 위한 안전벨트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철도 기능인으로 살 수 있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정 차장. 기능인으로서 정상에 선 그는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며 철도 동력차 정비 분야 후진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G

글 · 최은성 객원기자

# "덤으로 얻은 인생, 사할린동포와 함께"

## 사할린동포 보금자리 '고향마을' 지킴이 정천수 소장

영주 귀국 사할린동포들과 함께하기 위해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학과 러시아어를 공부한 정천수 소장(왼쪽에서 세 번째)의 꿈은 고향마을 안에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의 보금자리인 경기 안산시 사동 '고향마을' 아파트단지 내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정천수(50) 소장의 하루는 주민들에게 러시아어로 건네는 아침 인사로 시작한다.

2000년 2월 건립된 이 마을에는 현재 5백28가구 8백명(남성 2백62명, 여성 5백38명)의 사할린동포가 산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6세, 90세가 넘은 분들도 12명이다.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사람들의 2세다.

고향마을로 영주 귀국해 살다 숙환으로 사망한 주민이 2백60여 명에 이른다. 정 소장은 이들의 입관에 참여하고 염습(殮襲)을 함께 했다. 유족이 거의 없는 주민의 장례에는 상주 역할도 했다.

안산시 선부1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정 소장은 2002년 11월 사할린동포지원사무소장으로 부임한 뒤 고향마을 주민들이 기체조와 노래교실 등 여가를 즐기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2층짜리 지원사무소 건물을 지었다. 10억원에 이르는 건축비를 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해 지원받았고 공중보건의(한의사)를 고향마을에 상주시키는 '로비력'도 발휘했다.

그는 또 2004년에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사할린동포후원회를 꾸렸다. 후원회는 설이면 떡국 잔치를, 가을엔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고 수시로 노인잔치를 연다.

정 소장은 15년 전 백혈병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동생의 골수이식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는 "덤으로 얻은 남은 인생을 고향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고향마을을 돕는 고마운 분들이 많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 더 나은 고향마을 운영 위해 사회복지학 공부

정 소장은 고향마을 운영에서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2007년에는 '사할린영주귀국동포 생활상 및 사회복지 지원 실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러시아어도 독학으로 배워 한국어가 서툰 주민들과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눈다.

고창남(76) 고향마을 노인회장은 "고향마을에 정 소장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그는 고향마을의 산파이고 주민들에게는 은인과 같은 존재"라고 칭찬했다.

정 소장의 꿈은 고향마을 내에 요양시설을 건립해 주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G

글 · 최찬흥(연합뉴스 기자)

# 한가위 선물 '노인 생산품'으로 준비하세요

##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사업단 참여… 한과 · 떡 등 2백50여 상품 생산

선물 보따리를 가득 안고 고향으로 가는 길은 차가 밀려도 설레기만 한다. 올 추석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노인 생산품'으로 준비하면 어떨까.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만든 물건에 부모님도 만족하실 것이다.

노인 생산품은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사업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평생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상품이다. 천연비누, 한과, 양파즙, 떡 등 2백50여 종의 다양한 상품이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체의 영세성, 낮은 브랜드 인지도, 제품 포장 및 디자인 미흡 등으로 좋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가위를 맞아 노인 생산품 카탈로그를 제작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노인 생산품 전문 쇼핑몰인 하나하나몰에서 한가위 특별전 및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하나하나몰은 노인 생산품의 가장 큰 걸림돌인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 22일 문을 연 노인 생산품 전문 쇼핑몰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다.

한가위 카탈로그에는 수산 · 건어물, 건강식품, 간식류, 장류, 김치, 생활제품 등 6개 카테고리에 총 50종의 노인 생산품을 엄선해 수록하고, 선물용으로 적합한 21개 '명절 기획상품'을 특가로 판매한다. 이들 제품은 어르신들이 직접 손으로 제작한 수제품이 많고, 주로 천연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 정성이 돋보이는 추석선물로 손색이 없다.

### 하나하나몰 통해 한가위 특별전 등 판촉행사 진행

특히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추석맞이 이벤트 기간에는 하나하나몰을 통해 구매하는 고객 중 1백명을 추첨해 노인 생산품을 비롯해 청소기, 전동드라이버, 헤어드라이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벌인다.

상품 구매는 하나하나몰에 접속해 주문하면 되며, 온라인 구매가 어렵거나 단체로 구매하려면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할 수도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미애 민간지원팀장은 "한가위 선물로 노인 생산품을 구입하면 어르신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통해 고향의 멋과 맛을 소개하고, 그동안 고마웠던 분과 정도 나눌 수 있는 1석3조의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앞으로 공동 브랜드 '은모닝'의 확대와 포장 ·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노인 생산품 구매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연쇄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

글 · 이혜련 기자

하나하나몰 ☎ 02-6007-9146 www.hanahanamall.com

enjoymarket.kr

# "외국인 친구에게 전통시장 소개하세요"

##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문화관광형 시장 20곳·시장 투어 소개

외국인들도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지난 8월 4일 전통시장 외국어 홈페이지를 열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쇼핑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도 우리 전통시장을 한국의 특성과 문화를 알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제주도(18.1퍼센트), 서울 인사동(16.9퍼센트), 경주(15.7퍼센트), 고궁(10.8퍼센트), 전통시장(9.6퍼센트) 등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한국 특유의 콘텐츠를 선호했다.

### 3개 언어로 전국 문화관광형 시장 20여 곳 소개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서울의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문화관광형 시장 20여 곳과 시장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제공된다. 또 외국인이 우리 전통시장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시장 특산물, 먹을거리, 인근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 쇼핑과 관광을 함께 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인 시장투어는 정부가 교통비와 여행자보험을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참가할 수 있어 관심을 끈다.

시장투어는 버스와 열차 2가지 방법으로 참가할 수 있다. 버스투어의 경우 1만5천원에서 2만원 선이며, 열차는 4만8천원부터 8만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버스를 이용한 시장투어는 부산 자갈치문화관광마켓타운, 인천 종합어시장, 경기 양평시장 등 16곳의 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열차 이용 시장투어는 전남 곡성기차마을, 강원 주문진수산시장, 경북 경주중앙시장과 풍기인삼시장, 충남 강경젓갈시장 등 5개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장투어 프로그램은 2005년 시행돼 지금까지 총 5만 여 명이 전통시장을 방문했으며, 그중 20, 30대 참가자가 74.9퍼센트에 달해 젊은 층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 정석연 원장은 "그동안 전통시장은 언어의 한계로 높은 관심도와 문화관광적 가치에 비해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낮았다"며 "다국어 홈페이지가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인 전통시장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이혜련 기자

전통시장 다국어 홈페이지 www.enjoymarket.kr
시장경영진흥원 www.sijang.or.kr

시장경영진흥원

▲외국인에게 우리 전통시장을 알리는 전통시장 다국어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보가 제공된다.
◀한국의 문화와 재미를 느끼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 강원 주문진수산시장을 찾은 외국인들.

# 가을 에너지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책이 무한변신하고 있다. 그 발단은 디지털 전자기기인 태블릿 PC의 등장이다. 공책 모양의 태블릿 PC는 책 한 권보다 가벼우면서 수만 권의 책을 한꺼번에 보관해서 읽을 수 있다. 종이책의 단점을 보완한 전자책(e-Book)이 탄생한 것이다. 2007년 미국 대형 인터넷서점 아마존의 킨들을 시작으로 최근 애플의 아이패드, 삼성의 갤럭시탭까지 다양한 태블릿 PC들의 출시는 전자책이 미래 출판업계의 대안임을 보여준다.

하루 평균 4, 5권의 책을 읽고 1년에 4천~5천 장 이상 글을 쓰는 작가 장석주(56) 씨에게도 전자책 붐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스무 살에 등단해 시인, 문학평론가, 방송 진행자 등 다방면에 걸쳐 쉼 없는 활동을 펼치는 그에게 책은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는 매년 1천5백 권 이상의 책을 통독하며 창작활동을 병행한다. 시집, 에세이, 평론집 등 그의 이름을 단 책들이 벌써 60권이다.

이처럼 독자와 작가로 책과 다양한 관계 맺기를 지속해온 그에게 전자책의 등장은 요즘 가장 주시하는 이슈다. 그래서 그는 최근 사사키 도시나오가 펴낸 〈전자책의 충격〉을 여러 번 읽었다.

“전자책이 출판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란 전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5백 년 전 인쇄술이 지식의 유통 시스템을 변화시켰듯이 전자책은 문자 미디어의 유통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뒤바뀔 출판시장의 항로를 파악하고 싶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전자책의 미래가 좀 더 확고해진 것은 올해 초 아이패드가 출시되면서다. 스티브 잡스 애플 CEO는 아이패드 사용자가 출시 두 달 만에 5백만 권이 넘는 전자책을 내려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책의 저자 사사키 도시나오 역시 아이패드 출시를 주목하며 이로 말미암아 급변하는 출판업계에 어떤 혜안이 필요한지 책을 통해 얘기하고 있다.

사사키 도시나오 지음 · 한석주 옮김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 1만3천원

장 작가는 저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책의 출현으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 ‘자가 출판’이라고 강조한다. 자가 출판은 아마존이나 애플처럼 유통 플랫폼이 구축된 사이트에서 자신이 가진 콘텐츠를 전자책이나 종이책으로 출간하는 것이다.

“종이책은 전자책이 갖지 못한 오브제로서의 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자책의 강점은 실용성이에요. 수만 권의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내려받아 읽을 수 있고 거기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 직접 책을 펴낼 수도 있으니 21세기 출판시장의 혁명이죠.”

그러나 그는 자가 출판이 가능한 미래 출판시장의 판도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콘텐츠의 질이 현격히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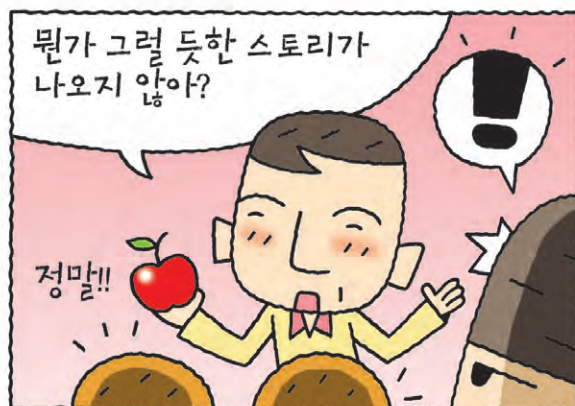
“중간에서 전자책의 질을 검증하며 재확인해줄 안내자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자기발전적인 측면에선 자가 출판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디지털 텍스트 플랫폼(DTP)과 같은 유통 플랫폼이 잘 구축된다면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조영철 기자

작가 장석주가 추천하는 〈전자책의 충격〉

# “뒤바뀔 출판시장 판도 알고 싶다면…”

# 절망과 희망의 차이

절망하지 말라. 비록 그대의 모든 형편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이미 일은 끝장난 듯싶어도 결국은 또다시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된다.
– 프란츠 카프카(독일 소설가)

신안 증도 모실길

# 느린 흐름 속에서 고향의 아늑함을 느끼다

전남 신안군 증도는 보물섬이다. 중국 송·원나라 시대의 도자기 수만 점과 함께 침몰한 보물선이 인근 바다에서 인양된 뒤로 그런 별칭이 붙었다. 이 작은 섬을 보물섬이라고 일컫는 까닭은 또 있다. 바다처럼 넓은 염전과 울울(鬱鬱)한 해송 숲, 짱뚱어와 낙지가 꿈틀거리는 갯벌도 증도의 보물들이다.

보물섬 증도는 낮고 평평하다. 산은 왕릉처럼 나직하고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하다. 그러니 초행길의 여행자에게도 제 고향처럼 아늑한 느낌을 준다.

슬로시티이자 '금연의 섬'으로도 유명한 증도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다. 아니 느긋하다. 풍속의 변화도, 주민들의 일상도…. 여행자들도 조급한 마음과 자동차를 버리고 거북이처럼 느긋하게 걸어야 이 섬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마침 증도에는 문화생태 탐방로 중 하나로 선정된 모실길이 있어 걷기 여행지로도 안성맞춤이다.

### 피난민 자립 돕기 위해 만들어진 태평염전

총길이 42.7킬로미터의 모실길은 증도대교를 건너자마자 시작된다. 해안선을 따라 섬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일주 코스여서 시점이 곧 종점이다. 어디서 시작해도 무방하지만 1코스부터 차례대로 걷고 싶다면 증도대교 끝에서 오른쪽 둑길로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증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걷기 여행자

슬로시티 증도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단일 염전인 태평염전. 해질 녘 태평염전에서 소금을 거둬들이는 모습이 여유롭다.

들은 대체로 증도의 대표적인 명소인 태평염전과 우전해수욕장을 먼저 둘러본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단일 염전인 태평염전은 6·25전쟁 직후 피난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전까지만 해도 증도는 전증도와 후증도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한다. 두 섬 사이의 갯벌에 제방을 쌓은 뒤 이 염전을 만들었다.

현재 4백60만 제곱미터(약 1백40만 평)의 태평염전에서는 연간 1만6천 톤가량의 천일염이 생산된다.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한 태평염전 입구에는 돌로 단단하게 지어진 소금창고가 있다. 국내 유일의 소금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태평염전과 함께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 제360호)으로 지정됐다.

소금박물관 옆 야산 정상에는 태평염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도 있다. 태평염전에는 소금박물관뿐 아니라 염전체험장과 태평염생식물원도 있다. 최근에는 소금박물관 인근에 소금동굴힐링센터도 문을 열어 천일염에 관한 모든 체험이 가능해졌다.

그늘 한 조각 없는 염전지대를 가로질러온 모실길은 마을길과 들길, 둑방길을 지나서 '꽃섬' 화도(花島)로 가는 길로 들어선다. 행정구역상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에 속한 화도는 증도면의 8개 유인도 중 하나다.

### 증도면 8개 유인도 중 하나 '꽃섬' 화도

화도와 증도 사이를 왕래하려면 길이 1.2킬로미터의 갯벌 위에 놓인 '노두'를 반드시 지나야 한다. 원래 노두는 밀물 때 바다에 잠겼다가 썰물 때에만 물 밖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화도의 노두가 실제로 바다에 잠기는 경우는 조석간만의 차가 큰 사리, 즉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의 몇 차례뿐이라고 한다.

모실길의 4코스가 지나는 화도 노두길의 양쪽에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다. 갯벌도립공원으로도 지정된 증도 갯벌은 어딜 가나 생명력이 가득하다. 칠게, 농게 등이 쉴 새 없이 갯바닥의 흙을 퍼먹는 모습과 짱뚱어가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뜀박질하는 광경을 손쉽게 볼 수 있다. 부산스럽게 먹이를 찾는 도요새도 이곳 갯벌의 주인이다.

전체 면적이 0.2제곱킬로미터(약 6만5백평)에 불과한 화도에는 이렇다 할 절경이나 명소가 없다. 그래도 최근 들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장혁·공효진 주연의 TV 드

한반도 해송 숲 '천년의 숲길'에 세워진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시비.

라마 〈고맙습니다〉의 촬영지로 알려진 덕분이다. 당시 드라마의 주요 세트장으로 활용됐던 민가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낯선 외지인의 끝없는 발길이 귀찮거나 불편할 듯싶은데도 화도 주민들은 하나같이 반가운 낯빛을 잃지 않는다.

### 한반도 형상의 명품 숲 '한반도 해송 숲'

모실길은 화도 바닷가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노두 건너 증도 본섬으로 이어진다. 덕정마을과 장고마을을 지나면 우전해수욕장 백사장을 따라 10만 그루의 해송이 빼곡히 들어찬 '한반도 해송 숲'이 지척이다. 숲 전체의 모양이 한반도 형상을 한 이 숲은 지난해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인 공존상을 받은 명품 숲이다.

원래는 우전해수욕장의 모래가 바람에 주변 농가와 논밭으로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풍·방사림으로 조성됐다고 한다. 이제 수령 40~50년의 아름드리 해송들로 가득 찬 이 숲은 '천년의 숲 산림욕장'으로 변신해 증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빠짐없이 찾는 명소가 됐다.

갯벌생태전시관을 출발해 한반도 해송 숲을 가로지른 뒤 우전해수욕장을 거쳐 짱뚱어다리를 건너는 3코스 '천년의 숲길'은 모실길의 하이라이트 구간이다. 길을 걷는 동안 저절로 사색에 잠기게 만드는 '철학의 길'도 있고, 온갖 시름을 잊게 해주는 '망각의 길'도 있다.

어느 길을 걷더라도 선선한 바닷바람과 뒤섞인 솔향기가 온몸을 휘감는다. 자신도 모르게 휘파람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기분 좋은 숲길이다.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온몸 깊숙한 곳에 쌓여 있던 노폐물과 온갖 시름이 모두 씻기는 듯하다.

길이 4백70미터의 나무데크 산책로인 짱뚱어다리에서는 증도 갯벌의 남다른 생명력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다리 아래 갯벌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먹이를 찾아 분주히 움직이는 짱뚱어, 농게, 칠게 등이 쉽게 눈에 띈다. 짱뚱어다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모실길의 2코스가 시작된다.

이 코스에서는 한반도 해송 숲이 한눈에 조망되는 상정봉과 증도 최대 어항이자 한때 파시가 섰던 검산항 입구를 지나게 된다. 해발 2백 미터의 상정봉에 올랐다가 다시 바닷가로 내려선 모실길은 방축리 해저유물발굴기념비까지 줄곧 해안도로를 따라간다. 바다를 길동무 삼아 걷는 구간이지만, 상쾌한 솔숲의 폭신한 흙길을 걷는 3코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걷기 고단하고 지루하다.

### '철학의 길'과 '망각의 길'이 있는 '천년의 숲길'

2코스와 1코스가 끝나고 시작되는 방축리 해저유물발굴기념비 근처의 얕은 바다에는 조선시대부터 존재해온 '만들독살'이 있다. 석방렴(石防簾)으로도 불리는 독살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바닷가에 쌓은 돌담이다.

밀물 때는 물에 잠겼다가 썰물 때에는 바닥을 드러낸다. 밀물을 타고 독살 안으로 들어왔다가 썰물 때에 미처 빠져나가

남태평양의 휴양지 못지않은 증도 우전해수욕장.

우전해수욕장 인근 솔숲에서는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지 못한 고기들을 손으로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 독살로 잡은 고기는 그물이나 낚시로 잡은 것에 비해 고통을 덜 받기 때문에 맛이 좋다고 한다. 만들독살 옆 갯바위에는 근래 들어 배 모양의 보물섬 카페와 유물전시관이 건립됐다.

해저유물발굴기념비에서 증도대교까지 증도 북쪽 해안을 따라가는 1코스는 모실길에서 가장 한적하고 호젓한 구간이다. 증도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증도의 낯선 모습을 이곳에서는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슬로시티 증도의 매력과 걷는 즐거움을 오롯이 즐길 수 있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 코스 정보

**1코스(노을이 아름다운 사색의 길) 10킬로미터, 3시간 소요**
증도대교→염산포구→나룻구지→향월포 → 해저유물발굴기념비

**2코스(보물선 순교자 발자취의 길) 7킬로미터, 2시간 소요**
해저유물발굴기념비 → 만들독살 → 검산항 → 상정봉 → 문준경 전도사 순교비 → 순비기전시관(짱뚱어다리 입구)

**3코스(천년의 숲길) 4.6킬로미터, 1시간 30분 소요**
짱뚱어다리 → 해송 숲 → 우전해수욕장 → 갯벌생태전시관(엘도라도 리조트)

**4코스(갯벌공원의 길) 10.3킬로미터, 3시간 소요**
갯벌생태전시관 → 장고마을 → 노두길 → 화도 → TV 드라마 〈고맙습니다〉 촬영지 → 노두길

**5코스(천일염길) 10.8킬로미터, 3시간 소요**
노두길 → 돌마지 → 태평염전 → 태양광발전소 → 소금전망대 → 소금박물관 → 태평염생식물원 → 증도대교

문의 **증도주민센터** ☎ 061-271-7619 |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 061-240-8357 | **갯벌생태전시관** ☎ 061-275-8400 | **증도슬로시티추진위원회 사무처장** ☎ 010-2600-3928

## 숙박

우전해수욕장의 맨 남쪽 해안에는 전용 해수욕장과 요트선착장까지 갖춘 엘도라도 리조트(061-260-3300)가 들어서 있다. 모든 객실뿐 아니라 옥외수영장, 노천탕, 식당, 커피숍 등 부대시설에서도 바다 전망이 시원스럽다. 이 밖에도 증도에는 솔꽁펜션(016-787-9954), 보물섬민박식당(061-271-0631), 해우촌한옥민박(061-271-4466), 반올림민박식당(061-261-1544), 에벤에셀민박(011-645-5569), 성지한옥민박(010-7628-9099), 증도황토펜션(010-4577-7734) 등의 민박집이 있다.

## 맛집

태평염전(061-261-2211)에서 운영하는 솔트레스토랑에서는 소금동굴생선구이, 함초떡갈비, 함초돈샤브칼국수, 함초낙지비빔밥 등 증도 특산물과 소금을 활용해 만든 다양한 요리를 내놓는다. 증도의 상설 음식점으로는 고향식당(061-271-7533), 왕바위조개마당(061-275-8903), 이학식당(061-271-7800), 갯마을식당(061-271-7528) 등이 있다. 대부분 민어, 농어, 낙지 같은 생선회와 가정식 백반, 낙지연포탕, 삼겹살 등 다양한 메뉴를 내놓는다. 화도의 반올림민박식당(061-261-1544)에서는 주인이 직접 잡은 낙지로 조리한 산낙지회, 낙지비빔밥, 낙지연포탕 등을 맛볼 수 있다.

## 가는 길

**승용차** | 서해안고속도로 함평 분기점 → 무안광주고속도로 북무안나들목 → 현경교차로(24번 국도) → 지도사거리(좌회전 · 805번 지방도) → 지도대교 → 증도대교 → 증도

**대중교통** | 광주종합터미널에서 증도까지 곧바로 가는 직행버스가 하루 3회(05:45, 08:30, 13:00) 출발한다. 2시간 소요.

# 김성녀, 1인 32역 신들린 연기

## 뮤지컬 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

"아내의 연기에는 장르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이 숨어 있다." "남편의 연출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도의 기술력 같다."

과연 연극계의 부창부수(夫唱婦隨)다. 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을 연출한 손진책 극단 미추 대표와 배우 김성녀는 9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앙코르 공연을 앞두고 서로를 이렇게 평했다.

〈벽속의 요정〉은 벽속의 요정과 함께 사는 엄마와 딸의 흥미진진하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다. 이 작품에서 김성녀는 50년 세월을 관통하며 1인 32역을 신들린 연기로 소화한다. 이에 힘입어 〈벽속의 요정〉은 2005년 초연 당시 올해의 예술상과 동아연극상 연기상 수상에 이어 평론가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연극 베스트 3에 드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전 공연 매진과 기립박수 기록을 이어올 만큼 흥행 면에서도 성공을 거뒀다.

극작가 배삼식의 탁월한 각색도 눈여겨볼 만하다. 스페인내전 당시의 실화를 토대로 한 원작을 6·25 전쟁을 배경으로 우리 상황에 맞게 각색한 한국 공연을 보고 당초 번안을 반대했던 원작자(일본 작가 후쿠다 요시유키)가 "또 다른 하나의 작품"이라고 극찬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김성녀가 객석에서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계란팔이 장면과 극중극인 '열두 달 이야기'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김성녀는 "10년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공연은 이해랑연극상 수상을 기념하는 무대인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일시** 9월 16~29일 화·금요일 오후 8시, 수·목요일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3시, 일요일 오후 2시(9월 16일 오후 2시, 8시 공연.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VIP석 6만원, 지정석(1층) 5만원, 자유석(2, 3층) 4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747-5161 www.sac.or.kr

● **소리극 〈황진이〉**

꽃보다 아름다운 시대의 예인, 황진이의 삶과 예술을 담은 국립국악원의 대표 브랜드 작품.
**일시**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료**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2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0-3300 www.gugak.go.kr

●

●● **NOW무용단의 〈삼일 밤 삼일 낮〉**

산 자와 죽은 자의 이별을 자연의 섭리로 이해한 한국적 감성으로 올해 유럽 5개 도시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NOW무용단의 대표작.
**일시** 9월 18일 오후 7시, 9월 19일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3674-2210 www.ntok.go.kr

●●

스피드가 몰려온다!

#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2010 FORMULA 1 KOREAN GRAND PRIX

## 10월 22 ~ 24일 /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Oct. 22~24 Korea International Circuit

**티 켓 구 매** · 온라인 : **www.koreangp.kr, 인터파크, 티켓링크**

수량이 풍부했던 1930년대 나주 영산포

# 4대강살리기는 강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한 금강세종시 구간

강에 퇴적토가 쌓이지 않았던 1930년대만 해도
내륙 깊숙이 배가 왕래할 정도로 수량이 풍부했습니다
4대강살리기는 퇴적토를 청소하여 우리 강을 치료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여 생명과 희망이 돌아오게 하는
우리강 제 모습 찾기입니다

**강을 치료합니다**
강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걷어내어
홍수와 가뭄으로 신음하던
강을 치료하게 됩니다

**생명과 희망을 돌아오게 합니다**
넉넉해진 강물로 인해 조류와 물고기등
주변 생태계가 풍요로워집니다

**환경을 생각합니다**
주변환경과 자연을 생각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공법을
사용합니다